

# 한반도 동남부에 있어서의 신석기시대 후반기의 무문양토기에 관한 연구

幸 泉 滿 夫  
(고이즈미 미츠오)

## 1. 머리말

주지하는 바와 같이, 해당 지방의 신석기시대 후반기 토기군은 그 뒤를 잇는 무문토기시대, 청동기시대로 나아가면서 점차 문양의 희박화가 진행된다. 일본 서부의 조몬시대 후반기 토기군의 변화보다 먼저 나타난, 괄목할만한 특징이다.

그러나 기존의 한국 고고학계에서는 이런 변천 과정을 논하는 수단으로 형식학적인 문양 변화를 주요 지표로 삼아왔다. 그 결과, 공반출토된 대다수의 ‘문양 없는 토기군’ (이하 ‘무문양 토기’)에 대한 검증 기회를 잃은 채 지금에 이르렀다. 이러한 학계 동향은 해협 너머 일본 측에서도 마찬가지였다.

현재 필자는 병행기 전후, 서일본의 ‘문양 없는 조몬토기군’ (이하 ‘무문계 토기’)에 대한 비교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그 최신 성과를 통해 한반도와 근접한 ‘쓰시마 난류 벨트지대’에서만 조몬시대 중기말엽~후기초두 단계 때부터 무문계 조제 심발이 전 기종 중 70~90%를 차지한다는 사실, 그리고 굴지구(掘地具) 등 농경 관련 석기군이 일찍부터 정착한 사실을 밝혔다(고이즈미(幸泉) 2008·2016·2017·2019b·2020ab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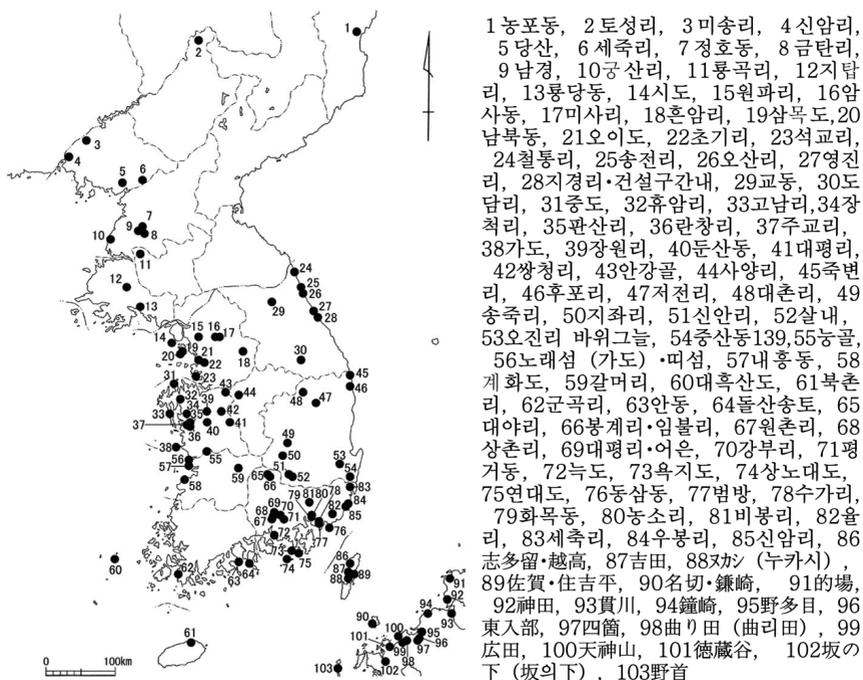
본고에서는 이와 같은 일본 측 토기 무문화의 배경과 원류를 찾는 것을 목적으로, 인접한 한반도 동남부(부산·김해, 울산, 대구, 그리고 남강 유역)의 신석기시대후반기의 토기를 비교·검증하고자 한다.

## 2. 한반도 동남부의 무문양토기에 관한 학사(學史)

한국 신석기시대의 후반 단계, 즐문계에서 무문양 토기로의 전환이 진행된 사실에 처음으로 주목한 것은 야마노우치 스가오(山內清男) 씨와 요코야마 쇼사부로(橫山將三郎) 씨의 둘이었다(야마노우치(山內) 1939, 요코야마(橫山) 1939: 이하 경칭 생략).

그러나, 그 후 오랫동안 그 과정에 대해서는 중국 동북부로부터의 새로운 민족 이동, 즉 농경과 청동기 문화를 지닌 “무문토기인(人)” (윤무병(尹武炳) 1979, p155)의 도래 및 이와 연동한 즐문계 토기 문화의 쇠퇴화 현상으로 설명되어 왔다. 다만, 아리미쓰 교이치(有光教一)는 즐문계 토기 자체의 편년 연구를 바탕으로 해당 시기의 한반도 내부에서 여러 토기문화 전통이 병존했을 가능성을 일찍부터 언급했고 단순한 대륙 문화의 남하로 치부할 수 없는 현상이라고 주장했다(아리미쓰(有光) 1955·1962).

그 후, 토기 편년의 연구가 진전된 것을 배경으로, 즐문계통 이전의 “선(先)즐문 토기 기” (김(金) 1981, p39)의 존재를 파악한 것을 바탕으로 하여 한반도 내부를 몇 가지 지역으로 구분하려는 안이 제기되기 시작한다. 이것들은 김원룡(金元龍)에 의한 일련의 연구 성과로 결실을 맺어 한반도 문화의 독자성, 지역차이론 등으로 발전해 간다(김(金) 1980·1984·1989 등). 김(金)은 토기의 무문화가 현저해지는 신석기시대 후기의 성립 이유에 대해서는 ‘화북형 농경 문화’가 주변 지역으로 확산한 것에 기인한다고 여겼다. 그리고 신석기시대 중기의 ‘전형적 즐문 토기’의 연속선상에서 변화



제1도 관련 유적의 분포

한반도 동남부에 있어서의 신석기시대 후반기의 무문양토기에 관한 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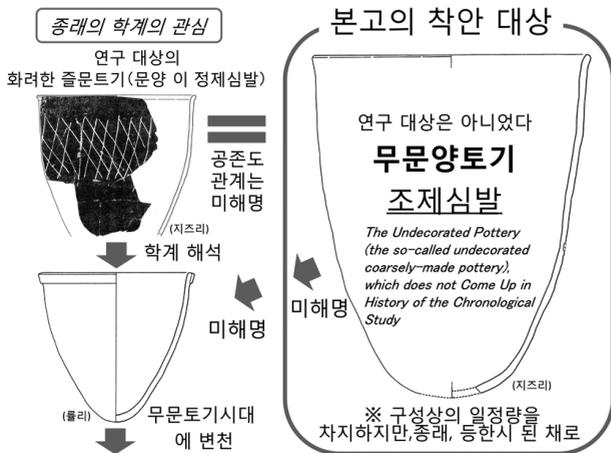
대한민국 (한반도 동남부 주변)			일본국 (쓰시마 난류 벨트시대 주변: 주로 북부 규슈 연안 지역)		
무문양: 본고 설정	분기 (신석기시대)	주된 형식	무문계: 후유2017	분기 (조몬시대)	주된 형식
K-Stage30	조기 후일	안도 재 I 층	J-Primitive Stage30	조기 후일	越高·香洪 병형 등
K-Stage31			J-Primitive Stage31	조기 말엽	轟A 병형 등
K-Stage32		비봉리 제31층 (용기문계)	J-Primitive Stage32	전기 초두	西之園 병형 등
K-Stage33	전기		J-Primitive Stage33		轟B 병형 등
K-Stage34		비봉리 제25층	J-Primitive Stage34		
K-Stage35		형선동 (자돌·압인동계)	J-Primitive Stage35	전기 전일	西條津·深塚·野口·羽島下層 II 병형
K-Stage36	중기 전반		J-Primitive Stage36		
K-Stage37			J-Primitive Stage37	전기 중엽	曾畑 I・II・北白川下層 II 병형
K-Stage38		수가리 I (고단계)	J-Primitive Stage38	전기 후일	曾畑 III・北白川下層 III 병형
K-Stage39	중기 후반	(자돌·술문: 침선문계)	J-Primitive Stage39	전기 말엽	尾田・大蔵山 병형
K-Stage40			J-Primitive Stage40	중기 초두	竹崎・石峰・鷹島 병형
K-Stage41		수가리 I (신단계)	J-Primitive Stage41	중기 전일	深浦·鞍安·船元 II 병형
K-Stage42	후기 전반	(침형 줄문: 침선문계)	J-Primitive Stage42	중기 중엽	野久尾·船元 II 병형
K-Stage43			J-Primitive Stage43	중기 중엽	春日 (北手敷)・船元 III 병형
K-Stage44		수가리 II·종계리 (고단계)	J-Primitive Stage44	중기 중엽	船元 IV 병형
K-Stage45	후기 후반	(퇴화 침선문계: 신단계)	J-Primitive Stage45	중기 후일	春日 (前谷)・里木 II・III (고단계) 병형
K-Stage46			J-Primitive Stage46	중기 후일	春日 (轟木가도)・里木 II・III (중단계) 병형
K-Stage47		동계리 (신단계) 병형	J-Stage 1		春日 (南宮島)・里木 II・III (신단계) 병형
K-Stage48		(퇴화 침선문계: 신단계)	J-Stage 2	중기 말엽	太平·竈木-阿高
K-Stage49	만기 전일		J-Stage 3	후기 초두 (고단계)	中津 I 병형·坂의下 (고단계)・南福寺
K-Stage50		수가리 III (고단계)	J-Stage 4	후기 초두 (신단계)	中津 II 병형·坂의下 (신단계)・南福寺
K-Stage51		(겹아가리계 I 단계: 河2006)	J-Stage 5	후기 전일 (1)	福田K2 (고단계) 병형
K-Stage52	만기 중엽		J-Stage 6	후기 전일 (2)	福田K2 (중단계) 병형
K-Stage53			J-Stage 7	후기 전일 (3)	福田K2 (신단계) 병형
K-Stage54		수가리 III (신단계)	J-Stage 8	후기 전일 (4)	橋詰 (高) ~ (신단계)
K-Stage55	만기 후일	(겹아가리계 II 단계: 河2006)	J-Stage 9	후기 전일 (5)	津雲 A 1 ~ 2 병형・土佐井
K-Stage56			J-Stage10	후기 전일 (6)	小池原上層・津雲 A 3 병형
K-Stage57			J-Stage11	후기 전일 (7)	鐘崎 II・彦崎 K 1 (중~신단계) 병형
K-Stage58	만기 후일		J-Stage12	후기 중엽 (고단계)	鐘崎 III・彦崎 K 1 (통과기) 병형
K-Stage59		상촌리 (* III단계: *)	J-Stage13	후기 중엽 (중단계)	北久根山 I・彦崎 K 2 (고단계) 병형
K-Stage60					北久根山 II・彦崎 K 2 (중단계) 병형

제2도 시기설정  
(河2006・田中2009 를 기반으로 작성)

한 후기의 '변형(퇴화) 줄문 토기' 가 내용물, 중국 동북지방 남부와 관련성을 유지하면서 신석기시대 종말기 즈음까지 존속한 사실을 근거로, 한반도 내부의 민족 구성에 커다란 변화는 일어날 수 없었다고 논했다(김(金) 1981, p73).

김(金)에 의한 이와 같은 일련의 예찰은 그 후, 각지의 지방 편년 정비로 이어진다(한국고고학회 편 2013 외). 그중에서도 최근에 신석기시대 후기후반~만기, 청동기시대 전기의 토기 편년은 눈에 띄게 진전되어 배진성(裴眞晟), 미야모토 가즈오(宮本一夫) 등의 연구를 통해 만기의 겹아가리 토기의 기원이 한반도 동남부일 가능성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지적이 나오게 되었다(이(李) 1991, 배(裴) 2003, 미야모토(宮本) 2004, 다나카(田中) 2009, 후루사와(古澤) 2011 등).

이런 가운데, 각 시기의 기종 구성에 대한 관심도 늘고 있다. 현재로서는 아직 유적 단위의 개체 수 식별조사를 바탕으로 한 구성비 산정이 중심이지만 무문계 토기의 비율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파악이 이루어졌다. 본고에서 대상으로 하는 한반도 동남부에서는 1970년대의 부산광역시 동삼동 패총 유적에서 실시된 초기의 조사 보고 사례가 그 효시일 것이다(L.L.Sample & A.Mohr 1974, 사카타(坂田) 1978).



제3도 미평가의 무문양토기

그러나 앞으로는 무문양 토기, 특히 그 주된 종류인 심발의 특성과 제작 기법, 그리고 지역별 변천 과정을 밝혀가는 작업이 불가결할 것이다. 제3도에 제시한 바와 같이 각 재지(在地) 무문양 토기의 신석기시대 후반기에 있어서의 양태를 파악함으로써 무문토기시대 성립에 이르는 각 지역의 주체성과 역사

적 변천, 일본 측과의 교류 관계에 대하여 더 구체적으로 밝혀질 것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한국에서도 유문의 즐문계~겹아가리계 만을 편년 연구의 지표로 삼아 옳으므로 일본과 마찬가지로 ‘무늬가 없는 신석기시대 토기’에 대한 평가를 계속 유보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그 결과, 중국 동북부가 기원인 것으로 여겨지는 ‘무문토기 문화’와 한국 신석기시대 토기 문화에서 ‘재래’로 추정되는 ‘무문양 토기’는 다르다는 등의 선입견이나 고정 관념을 불식하지 못하고 있고, 양자의 직접 또는 간접적인 영향 관계에 대해 오랫동안 본격적으로 논의할 기회를 잃어왔던 것이다<sup>1)</sup>.

이상의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본고에서는 한반도 동남부를 예로 들어, 다시금 신석기시대 후반 단계에서의 무문양 토기 각각의 특징과 구성비율, 그리고 그 변천 과정을 검토하도록 하겠다.

### 3. 분석의 전제

시기설정에 대해서는 제2도를 기준으로 한다.

이어지는 제4도는 무문양 토기의 주된 종류인 심발에 관한 속성 분류 일람이다. 전체적으로 기형(器形)은 그림 윗단의 【가】에 도시한 바와 같이, 우선 경동부(頸胴部)부분의 굴곡이 명료하지 않거나 존재하지 않는 ‘II포탄형’과 굴곡부가 있는 ‘I굴곡형’으로 크게 나눌 수 있다. 이번의 한반도 대상 지역에서는 전자를 원칙으로 하고 있고, I형은 많은 경우 외래계라고 판단할 수 있다.

포탄II형을 세분화하면 구연부 모양에 따라 홀구연(A: 내만, B: 직립, C: 외반)과

‘D: 겹아가리’ 로 분류할 수 있다. 각각은 미세한 기형 변화가 있기 때문에 도시한 바와 같이 세별 기준을 마련했다.

시각적 특성 차원에서 더욱 자세히 토기를 식별하려는 경우, 특히 증시되는 것이 구연부이다. 그래서 제4도 가운데 단【나】에는 심발 구연부의 세별 기준을 마련했다. ‘s: 홀구연’ 과 ‘d: 겹아가리’ 로 크게 나누고, 각각 세별 기준을 마련했다.

제4도 아랫단【다】는 심발 저부의 분류 일람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신석기시대 후반기의 해당 지방은 환(원)저와 첨저를 원칙으로 하나, 그중에는 중저와 환(원)저의 중간형인 중환저가 종종 보인다. 아울러, 극히 적은 양이지만 접지부 바깥둘레에 융대(隆帶)를 만들어 면을 형성한 돈대바닥과, 중앙이 ‘활과 시위(아래쪽이 평평함)’ 모양으로 움푹하고 접지면이 없는 요저가 존재한다. 이미 필자가 지적한 바와 같이 일본 측과의 교류를 시사하는 개체도 일정량 포함되어 있을 것이다(고이즈미(幸泉) 2009). 이상에 대해서도 각각 ①~④의 세별 기준을 마련했다.

한편으로 구경(口徑), 저경(底徑) 등 범량 변화에 대해서는 딱히 기준을 마련하지 않았다.

II 포탄형군 (심발)	A 내반 포탄형	
	B 직립 포탄형	
	C 외반 포탄형	
	D 겹아가리포탄형	
I 각 굴곡형		

【가】 전체 기형 분류(심발 구연~몸통/중단면형)

심발 구연부	s 홀구연	
	d 겹구연	

【나】 심발 구연부 형태의 상세 분류(중단면형)

환(원)저	첨저	중저	중환저	돈대바닥	요저

【다】 심발 저부 형태의 분류(중단면형)

제4도 무문양토기의 분류

#### 4. 한반도동남부의 주요 조사 사례

앞으로 본고가 대상으로 삼는 것은, 부산광역시 동삼동 패총 유적 (윤(伊)·임(任)·오(吳) 2004ab·2005, 하(河) 2007 등), 경상남도 김해시 수가리 패총 유적 (정(鄭)·신(申) 1981, 임(林)·안(安) 등 2011), 부산광역시 범방 유적 (하(河) 2009), 경상남도 진주시 상촌리 유적 (동의대학교(東義大學校) 2002 등), 김해시 송죽리 유적 (배(裴) 2006), 김해시 지좌리 유적 (조(曹) 등 2012), 경상남도 합천군 봉산면 봉계리 유적 (심(沈) 1989), 울산광역시 중산동139 유적 (최2009), 경상북도 청도군운문면 오진리 바위그늘 유적 (정(鄭)·박(朴)·서(徐) 외 1994), 부산광역시 울리 패총 (김(金)·정(鄭) 1980) 의 각 예이다.

##### (1) 부산광역시 동삼동 패총

한반도 동남부에서의 무문양 토기의 편년은 부산광역시 영도구에 자리한 동삼동 패총의 층위 사례가 기축이 되어 시작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동삼동에서는 과거에 7번 이상에 걸쳐 발굴 조사가 실시되었고, 신석기시대 초기 이후의 거의 모든 시기가 일정한 층위적 상하 관계를 유지하면서 남아있는 것으로 알려져 왔다(김원룡(金元龍) 1973·1984, L.L.Sample & Albert Mohr1974, 사카타(坂田) 1978, 윤무병(尹武炳) 1979, 윤(伊)·임(任)·오(吳) 2004ab·2005, 하(河) 2007 등).

동삼동 패총에서 무문양 토기를 포함한 개체 식별 조사가 처음으로 실시된 것은 1963~1964년 Sample·Mohr에 의한 시굴 성과 보고 때이다(제5도, 제1표). 여기에서는 층위의 상하 관계를 논거로 신석기시대 전기를 ‘부산(釜山)기’, 중기를 ‘두산(頭山)기’, 후기를 ‘영도(影島)기’ 로 독자적으로 설정했다. 단, 각 층 모두 전후 시기의 것이 혼재되었음이 확인되었고, 안타깝게도 각 시기의 정확한 구성물을 보여주는 것은 아니었다. 그렇지만 각 층 모두 무문양 토기가 상당한 비율을 차지했다는 사실만큼은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사진1). 여기에 Applique(지두문 유형)를 무문양 조제 토기의 일종으로 분류한다면 본고에서 초점을 맞추는 신석기시대 후반기 이후의 무문양 토기 비율은 실로 80% 가까이에 달한다(사진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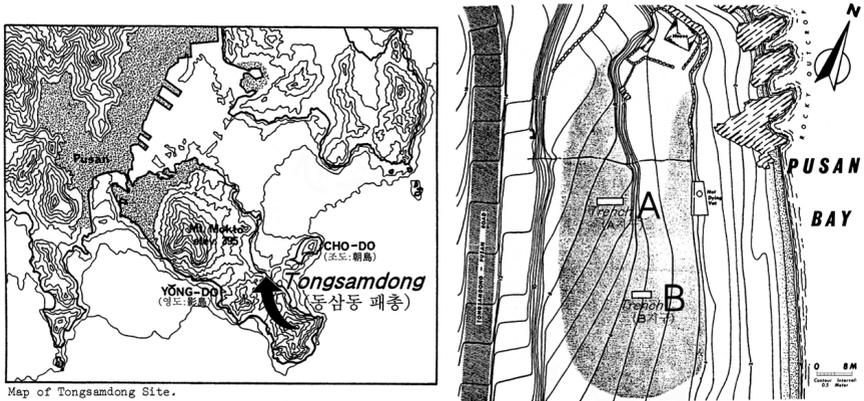
1969~1971년에 국립중앙박물관이 3차에 걸쳐 실시한 발굴조사는 위의 시굴 다음에 이루어졌고 규모도 크다. 동삼동 패총의 층서는 제1문화층(하층; 제4·5층), 제2문화층(중간층; 제3층), 제3문화층(상층; 제2층)의 세 시기로 크게 나뉘고 각각이 신석기시대 전기, 중기, 후기로 비정(比定)된다. 그중에서도 핵심을 이루는 것이 제5~3층(전기~중기)이다. 이 또한, 2000년대의 정식 보고서군(群) 간행을 통해 안타깝게도 전후 시기가 뒤섞인 부분이 확인되었다(윤(伊)·임(任)·오(吳) 2004ab·2005). 또한, 총 출토 수가 대단히 많기도 해서 아직 개체 수 비율 등을 포함한 전모에 대한 공표도 정

제1표 Sample & Mohr가 제시하는 동삼동의 층별 문양 계통 구성

(L.L.Sample & Albert Mohr 1974 p23 Table3 보다 작성)

용기문	형·압인·침선	지두문 (무문)	무문양	그 외	개체수	분기	동삼동 편년
부산기	8.2%	8.8%	19.1%	58.5%	5.4%	1,654점	전기 제 1문화층
부산·두산기	5.1%	12.4%	21.0%	57.1%	4.4%	1,967점	전·중 1·2 이행기
두산기	2.5%	24.1%	11.2%	58.7%	3.5%	5,429점	중기 제 2문화층
두산·영도기	1.1%	24.6%	4.3%	64.2%	5.8%	1,017점	중·후 2·3 이행기
영도기	0.4%	0.4%	0%	76.9%	22.3%	214점	후기 제 3문화층

(굵은 글씨는 3할 이상을 나타낸다)



제5도 동삼동 패총의 위치와 Sample & Mohr 등의 시굴 지점

(L.L.Sample & Albert Mohr 1974 p9 · 12 Fig1 · 2 보다 일부 가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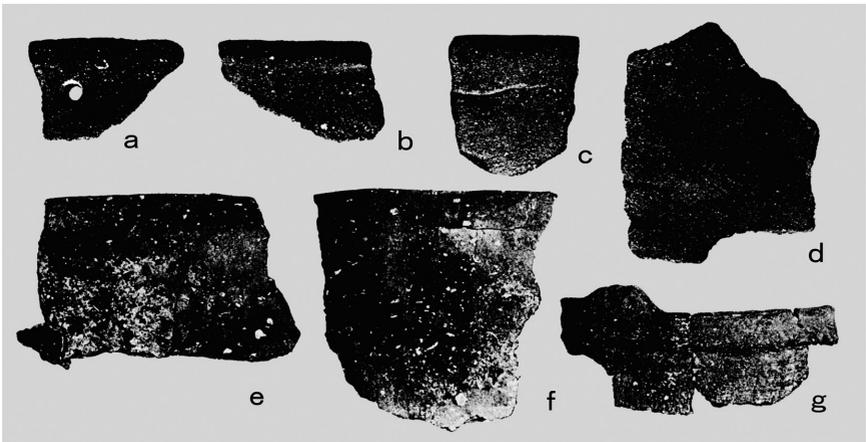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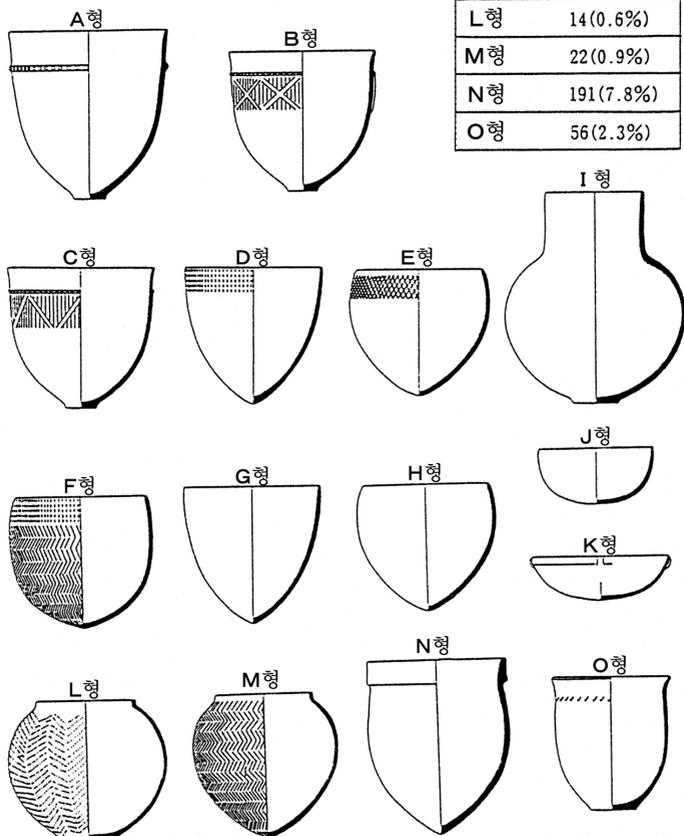


사진1 Sample & Mohr가 소개했다 동삼동 패총 출토의 무문양토기

(L.L.Sample & Albert Mohr 1974 p71 Plate29 보다 작성)

동심동 5층		동심동 4층		동심동 3층	
A형	132 (16.1%)	A형	6 (2.6%)	A형	47 (1.9%)
B형	78 (9.5%)	B형	4 (1.7%)	B형	27 (1.1%)
C형	49 (6.9%)	C형	0	C형	0
D형 } E형 }	156 (19.0%)	D형 } E형 } F형 }	98 (42.6%)	D형 } E형 } F형 }	1353 (55.3%)
G형 } H형 }	244 (29.8%)	G형 } H형 }	101 (44.0%)	G형 } H형 }	581 (23.8%)
I형	100 (12.2%)	I형	9 (3.9%)	I형	64 (2.6%)
J형	60 (7.3%)	J형	12 (5.2%)	J형	82 (3.4%)
				K형	9 (0.4%)
				L형	14 (0.6%)
				M형	22 (0.9%)
				N형	191 (7.8%)
				O형	56 (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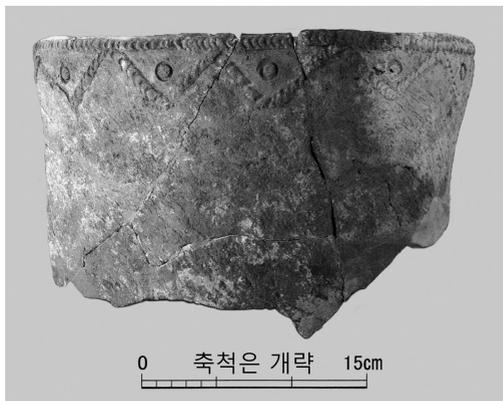
제6도 사카타(坂田)에 의한다 동심동 패총 출토 토기군의 분류 (坂田1978)

식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과거에 사카타 구니히로(坂田邦洋)가 발표한 위 토기군의 기종 구성에 관한 산정 결과가 참고가 된다(사카타(坂田) 1978, 82-86쪽; 제 6도). 이를 바탕으로 신석기시대 전기의 제5층과 제4층을 비교하자면 유문 토기는 우선 용기문계의 A~C형에서 즐문계 D~F형으로 무늬 주체가 바뀐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무문양 심발 G-H형의 비율은 이 시기에 30~40% 이상이다. 이어지는 중기~후기의 제3층에서는 무문양이 50% 이상으로 과반수를 차지하고, 아울러 후기 이후에 계승되는 K~O형이 새 기종으로 추가된다. 여기에서 주목되는 것이 무문양 토기 비율의 저하로, 후기 토기를 포함했는데도 전체적으로 30% 전후로 낮다. 즉, 전후 시기의 혼재를 감안하여 제하면, 중기의 원래 무문양 토기는 더욱 적다고 봐도 될 것이다. 한편, 이 제3층에서는 일본 규슈 고유의 아다카계 토기가 출토되어, 연대의 하한 부근이 조몬시대 중기후일과 겹칠 가능성이 높다. 이어지는 신석기시대 후반기의 제2층에서는 무문의 곁아가리 토기와 무문양 토기, 지두문 토기가 점차적이긴 하나 주체를 점하게 된다. 물론, 이들 상부층에서는 조사 지구 전역에서 신석기시대 초기~중기 자료의 혼재율이 더욱 높아진다. 이를 이유로, 무문양 토기의 증가는 충분히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사카타(坂田)는 1978년 시점에 제2층의 개체 수 조사를 단념한 것 같다.

그 후로도 몇 차례 조사가 이루어졌으나, 1999년에는 유적 주변의 정화(사적 공원 정비)와 이 폐층의 현지전시형 자료관(부산박물관) 건설(사진2)을 목적으로 한 조사(이하 ‘정화 지역’)에서 비교적 일관성이 높은 층위자료 검출에 성공했다(하(河) 2007). 즉, 신석기시대 초기~만기까지의 다섯 개 문화층이다(제 I~V 문화층). 이 중 중기의 제Ⅲ 문화층은 태선침선문계(수가리 I 식) 단계로, 제1·2호 주거지와 제 5-1~5-4층, 4호 수혈이 해당한다. 후기의 제Ⅳ 문화층은 퇴화 침선문계와 자돌문 외반구연계(수가리 II 식·봉계리 식)의 단계로 제3·4층이 해당한다. 마지막의 만기를 나타내는 제 V 문화층은 곁아가리 단사선문계(수가리 III 식·울리 식) 단계로 제2층이 해당한다. 여기에서는 이들 정화 지역 제Ⅲ~



사진2 부산박물관과 사적 공원  
(2008년 고이즈미(幸泉) 촬영)



**사진3** 동삼동 정화 지역 출토 후나모토Ⅱ식계 토기  
(河2007보다 일부 재편)

중 1·2와 같이 구연부에 압인기법의 단사선문이 있고, 몸통부와 그 아래에 정연하게 횡주 어골문이 그려진(그중 2에는 두 문양의 경계 영역에 삼각집선문까지 있다) 일군은 전기와의 연속성을 시사하는 전기 알엽의 것들로 볼 수 있을 것이다. 한편으로, 3~10은 전기적인 압인계 장식이 사라지고, 즐문만 전면적으로 적용된 것들이므로, 형식학적으로는 한 단계 이상 새롭다고 유추할 수 있다. 단, 해당 유적에서 이 두 부류의 층위적 구별은 어렵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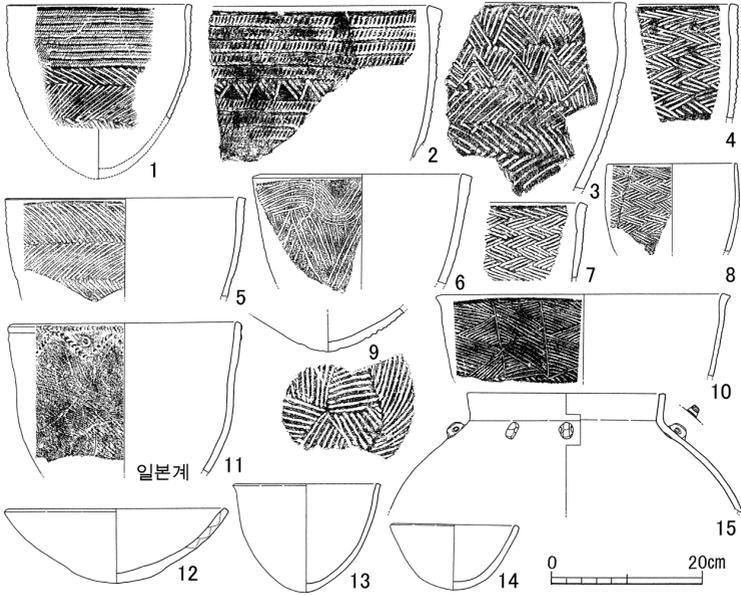
해당 토기군 중에서 특히 주목되는 것이 11에 제시한 일본의 후나모토(船元)Ⅱ식계(조문시대 중기전일: 한국 신석기시대의 중기전반과 겹침)의 존재이다. 외기면에는 거칠게 끈 모양의 ‘단절(單節) RL 조문(繩文)’ 이 모든 면에 시문되어 있어, 이매패(二枚貝) 조흔이 두드러진 규슈보다는 오히려 주고쿠(中國)·시코쿠(四國) 지방의 특징에 가깝다. 11의 존재는 양국간의 병행 관계를 시사하는 한 정점(定點)이므로, 앞으로 이 토기편에 대한 일본 내에서의 더 자세한 기원 해명이 기대된다.

자, 공반출토된 무문양 토기는 우선, 확실해 보이는 심발형은 없다시피 했다. 이것 만으로도 신석기시대 초기~전기와는 양상이 분명히 다르다 하겠다. 무문양에 속하는 것은 12~15에 도시한 것과 같은 소량의 발, 천발(淺鉢), 항아리 모양뿐이다. 기면 마무리는 모두 정제로, 거칠게 마무리한 무문양 토기는 아직 존재하지 않는다.

제8도는 같은 제2층에서 출토된 만기 토기군이다. 중기와는 양상이 달라져 유문양 토기는 1~3·16~18에 도시한 바와 같이 극히 적다. 이들 토기는 신석기시대 만기의 지표인 곁아가리 심발에 절충하는 예와, 앞단까지의 홀구연을 계승하는 일군으로 크게 나눌 수 있다. 형해화된 퇴화 어골문(2), 단사선문(3·16~18), 점렬문(1)을 볼 수 있다. 1은 구연부에도 장식이 나타나게 된 예이다. 또한, 무문양 토기의 곁아가리 심

V 문화층에서 출토된 양호한 토기군 중에서 특히 혼재가 적은 중기의 제1호 주거지와 제5-1~5-4층, 및 만기의 제2층 출토 토기군을 중심으로 살펴보려 한다.

제7도는 1호 주거지와 제5-1~5-4층 출토 토기군이다. 외기면 전체가 정밀한 즐문 등으로 가득 찬 유문 심발이 압도적인 주류를 이룬다. 더욱이, 이 단계에서는 거의 모든 기체를 연마하거나 치밀한 물손질로 마무리했다. 이하, ‘정제 토기’ 라고 칭하겠다. 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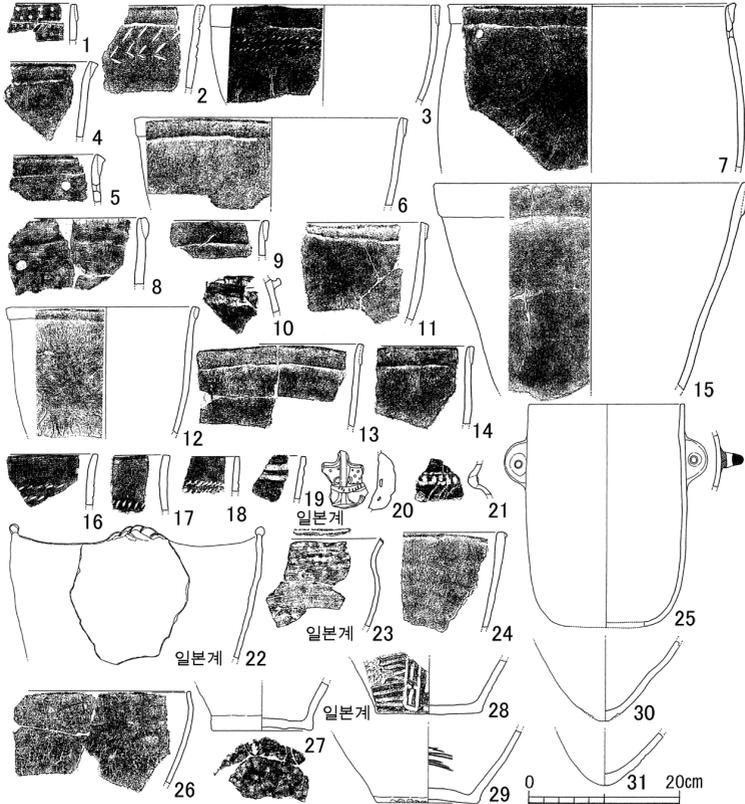
제7도 동삼동 정화 지역 제1호 주거지·제5-1~5-4층 출토토기 (河2007)

발이 압도적으로 많아, 같은 만기라 하여도 중엽 단계가 주체임을 추측할 수 있다.

24·25는 홀구연의 무문양 심발이다. 24는 구순부 외연이 바깥으로 향하는 직립 ⑤형으로, 해당 시기 전후의 특색을 이룬다. 25는 손잡이가 있는 직립구연 포탄형이다. 같은 종류의 호형토기와도 통하는 정제의 중환저 토기로, 북방에서 온 외래계임을 나타내는 것일 가능성이 있다.

30·31은 저부이다. 첨저 ②·③형을 기본으로 한다는 점에서 곁아가리 심발이지만 후일 단계까지 내려갈 가능성은 없다.

또, 같은 층 출토 토기군에서 주목되는 점은 일본계 토기 비율이 높다는 점이다(제 8도 19~23·27~29). 19는 조몬시대 중기말엽~후기초두의 북부 규슈~서부 세토우치(瀬戸内)에 분포한 침선문계(사카노시타(坂の下)식)와 유사한 토기편이다(사진4 오른쪽 위). 구연부에 폭 6~7mm 정도의 열고 두터운 2조(條) 평행요선문(平行凹線文)이 시문되어 있는 포탄형 심발이다. 목 부분 아래는 무문임을 유추할 수 있다. 20은 조몬시대 후기초두의 규슈 북반부에 분포한 난푸쿠지(南福寺)식과 유사하고(사진4 왼쪽 아래), 21은 호형토기이다. 목 부분의 작은 토기편이기 때문에 자세히는 알 수 없으나 마찬가지로 난푸쿠지(南福寺)계 장식의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 22는 그 형



제8도 동삼동 정화 지역 제2층 출토토기  
(河2007)

식 판단을 둘러싸고 지금도 의견이 갈리는 토기편이다. 즉, 난푸쿠지(南福寺)식(오카다(岡田)·하(河) 2010, 후루사와(古澤) 2012 외)와 기타쿠네야마(北久根山) I 식(미야모토(宮本) 2004, 미즈노에 가즈토모(水ノ江和同) 2007 외)으로 견해가 갈린다. 둘의 해석은 실제 연대로 환산하면 500년 전후의 차이가 있으니 앞으로의 과제라 하겠다. 초점이 되는 파정부(波頂部)의 4줄 빗금 새김은 원래 기타쿠네야마 I 식에서 전형적으로 보이는 ‘W자 모양 덧무늬’가 아니다. 더 비슷한 유형은 오히려 조몬시대 후기 중에서도 초두~전잎의 토기에서 종종 볼 수 있다. 23은 같은 2층 중에서도 가장 새것으로 보이는 조몬토기편이다(사진4 오른쪽). 목 부분이 크게 굴곡된 I ⑥ 모양이고, 구순부에는 열은 횡주침선(橫走沈線) 1조가 있다. 널리 서일본에서 조몬시대 후기

전일 단계에 확인되는 타입의 심발이다(필자의 무문계 K유형 IX①형: 고이즈미(幸泉) 2017, p65 참조). 비교적 존속 기간이 긴 타입이기 때문에 형식을 특정하기는 극히 어려우나, 제2도 오른쪽 옆에 제시한 필자의 기준에 따르자면 Stage 5~12 사이에 속할 것이다. 27~29는 조몬토기계의 저부편이다. 바닥 지름은 차례로 13, 14, 13cm로 모두 대형이다. 이 중 27·29는 중앙부가 약간 볼록한 중저 II류(고이즈미(幸泉) 2009)이고, 27의 외저면에 지두흔이 뚜렷이 남아있다. 조몬시대 중기말엽~후기초두 단계, 대체로 사카노시타(坂の下)식 ~ 난푸쿠지(南福寺)식 단계에 속할 것이다. 28은 저부 외면에까지 중횡대상(縱橫帶狀)의 구획장식이 그려진 심발 혹은 발이다. 모티프의 변화가 현저하여 형식을 확정하지는 못했으나, 일본 내에서 유사한 타입은 조몬시대 후기전일의 후쿠다 K2식 중~신 단계(제2도의 J-Stage 6~7)뿐이다<sup>2)</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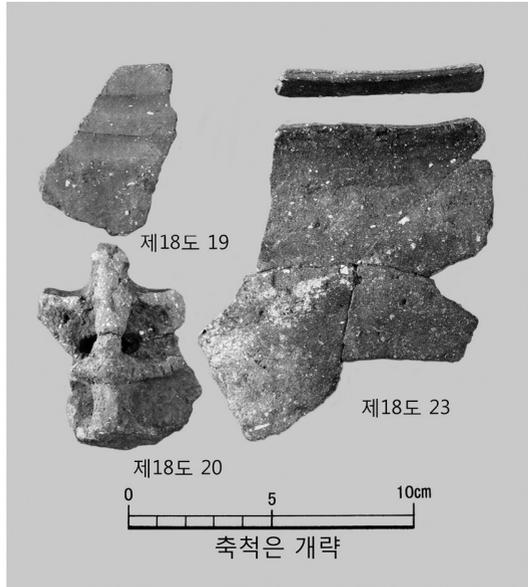


사진4 동삼동 정화 지역 출토의 일본계토기 (河2007보다 일부 재편)

## (2) 경상남도 김해시 수가리 패총군

이어서 학사(學史) 상, 신석기시대 후반기의 지표로서 가장 중시되어 온 것이 수가리 패총군이다. 이 패총은 1978~79년에 걸쳐 부산대학교 박물관이 조사를 실시하였고, 초승달 모양으로 배치된 다섯 개 패총과 관련 유구 등을 면밀히 조사했다. 그중에서도 3구패총에서는 제 I~VI층의 분층 발굴을 바탕으로 세 단계의 변천안(수가리 편년)이 제기되어 왔다(정(鄭)·신(申) 1981, 임(林)·안(安) 등 2011).

수가리 I 식은 3구패총 가장 아랫부분의 제VI~V층을 표식으로 한 신석기시대 중기에 해당하는 층위를 지표로 한다(제10도 윗단). 구연부에 단사선문, 마름모꼴 집선문, 삼각 집선문 등이, 몸통부에는 횡위(橫位) 어골문 등이 있는 토기군이 전형을 이룬다. 기종은 첩저 심발 외에 각종 발형, 소수의 호형, 단도(丹塗) 마연토기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같은 층에서 출토된 심발에서 보이는 문양대(文樣帶) 배열은 크게 둘로 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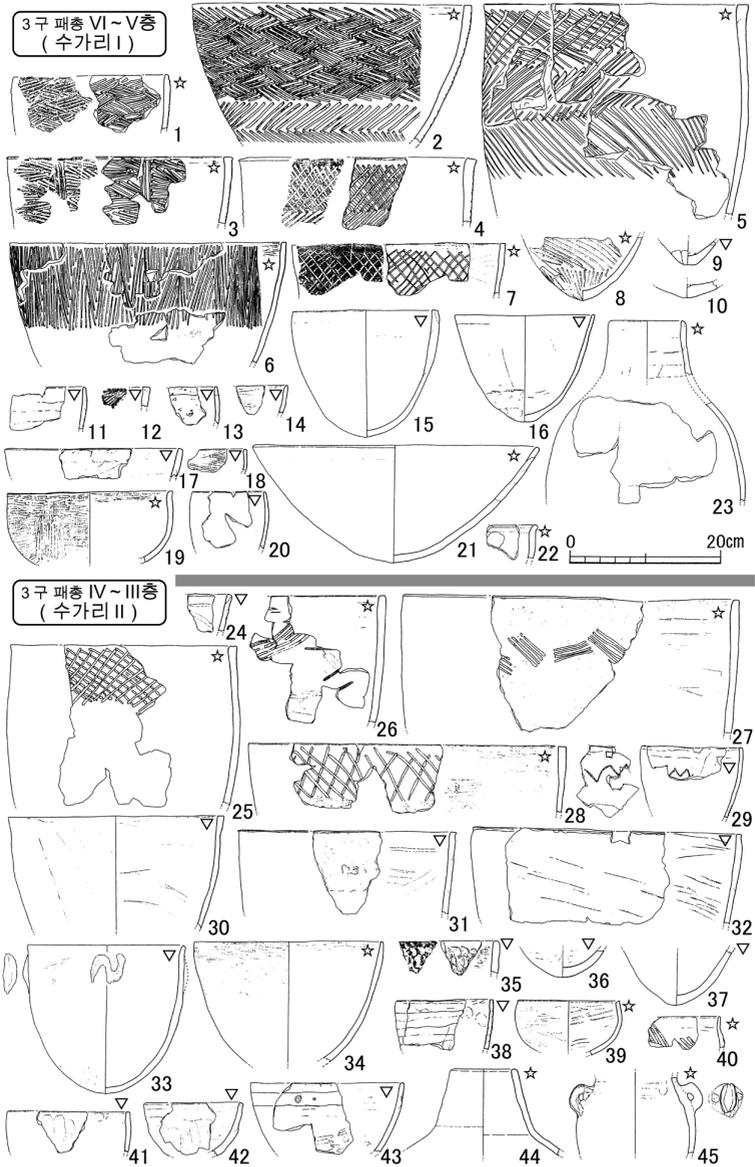
된다. 즉, 구연부에서 저부까지의 외기면 전체를 정교한 태집선문(太集線文)으로 채운 일군(A형: 1~4·8)과, 문양은 정교한 집선문이지만 위치는 구연부 바깥면에 집약되어 있는 일군(B형: 5~7)의 둘이다. 앞으로, 임시로 전자를 수가리 I a식, 후자를 수가리 I b식이라 부르겠다. 앞서 논한 동삼동 패총 제Ⅲ층과 병행 관계에 있는 것은 I a식이고, 아울러 후술하는 후기와와의 관계를 고려했을 때 I b식은 중기후반이라고 새로이 추정할 수가 있을 것이다. 이들은 문양 시문이 아직 정교하고 정연하다는 점에서 후기의 수가리Ⅱ식과도 구분이 가능하다.

이들 유문양 심발 일군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것은 그 기면 조정법이라라. 그림 안에 ☆로 표시한 바와 같이 수가리 I ab식 단계의 유문양 토기군은 원칙적으로 오로지 정제뿐이다. 공반출토된 발형(19·21·22), 호형토기(23)도 정제이나 이들은 무문을 지향하는 경향이 강하다.

제Ⅵ~Ⅴ층에서 출토된 무문계 토기는 전술한 동삼동 패총과 마찬가지로 구성률 20%로 감소 추세에 있다. 기종은 유문양 심발(구경 20~38cm)에 비해 확연히 소형이다(임(林)·안(安) 등 2011, p238). 지름 18~19cm 정도 소형 심발의 직립①·②형과 발형, 호형토기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여기에서도 주목해야 할 것은 기면 조정법이 되겠다. 이들 수가리Ⅱ식 단계의 토기군 중에 심발형인 제10도 11~17은 기면에 거친 ‘물손질’, 조흔, 칼과흔이 그대로 남아 있다. 앞으로, 이들을 ‘조제 토기’로 칭하여 구별하겠다. 이 중에는 이때패 조흔이 남아있는 12·14와, 원래 몸체가 밝혀지지 않은 세밀한 조흔이 안쪽 면에 남아있는 17도 있다. 일부 상층에서 혼입되었을 가능성도 완전히 부정할 수는 없으나 여기에서는 신석기시대 후기를 앞둔 무문양 토기의 재편, 및 정·조제 제작 기법의 분화에 이르는 맹아기로 위치지워 두려 한다.

이어서, 수가리Ⅱ식은 3구패총 중간층인 제Ⅳ~Ⅲ층을 기준으로 한 신석기시대 후기의 비교적 양호한 일군이다. 기종은 심발을 비롯하여 발형토기, 긴목 호형토기 등이 보인다. 앞단보다 발형토기가 뚜렷이 증가했다.

유문양심발의 경우 전면 시문의 A형이 이미 전혀 없고, 문양을 구연부 바깥면에만 시문하는 B형만으로 이루어지게 된다. 또한, 문양 패턴도 구연부에 사격자문(斜格子文)이나 퇴화한 삼각 집선문을 시문하는 정도로 침선(沈線) 간격이 거칠고 선이 얇아지는 경향이 현저해진다. 퇴화 즐문으로 여겨지는 25~28의 각종 문양은 앞단의 IV~Ⅴ층 일군과 비교하면 확연히 조잡해졌고, 사격자문, 삼각 모양 집선문 등 변이 장식이 여럿 파생되었다. 또한, 시문 행위 자체를 간략화한 타입도 확인된다(29). 일본 측의 서일본 일대에서도 조몬시대 중기후일~후기전일 시기에 특징적으로 확인되는 유문양 조제의 심발군이 여기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고이즈미(幸泉) 2001·2017·2018a 등). 한편, 24는 외기면에 기하학적인 열고 두꺼운 불룩한 선을 그리는 조몬토기계의 침선문 토기편(조몬시대 중기말엽 전후)으로, 일본 측과의 교류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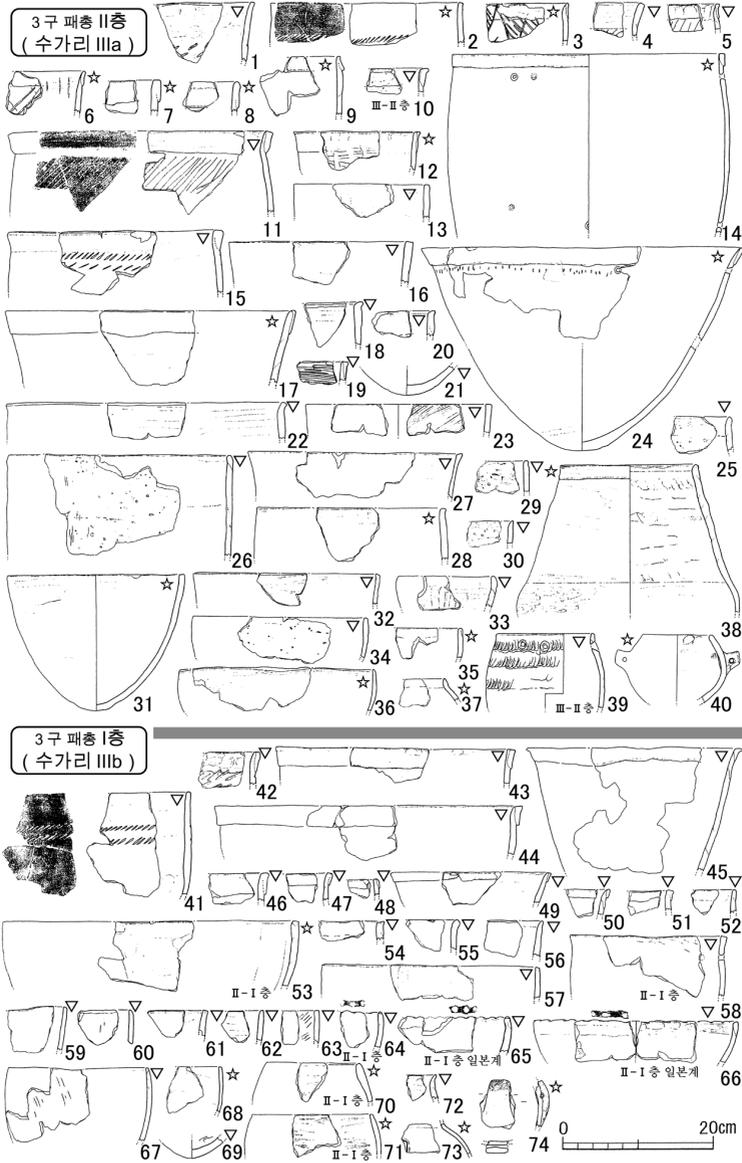
제9도 수가리 3구 패총 출토토기 (1)  
 (☆: 정제 ∇: 조제 / 林·安 등2011)

가리키는 사례이다. 위에서 논한, 퇴화가 진행한 유문 심발은 기면을 연마 등으로 치밀하게 마무리한 정제토기(그림 안 ☆ 표시)가 아직 압도적으로 많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

공반출토된 무문양 심발은 그 구성물이 36.7%로 높아진다(제10도 아랫단 30~34). 게다가 구경 28~36cm의 심발 기종이 많아, 앞단까지의 유문 심발의 일부가 무문화한 것으로 추정된다. 기형은 직립①형이 기본이고, 구순부를 눌러 목귀질 조정함으로써 약간 두꺼워진 개체도 많다. 또한, 33과 같이 외반③a형의 개체도 새로 나타난다. 여기에서도 주목할 부분은 기면 조정법이 한층 조잡해지는 추세에 있다는 점이었다(그림 안 ▽ 표시). 조정법으로는 거친 ‘물손질’ 외에 지두흔, 찰과흔을 남기는 정면 마무리가 확인된다. 또한 접합흔의 일부를 그대로 남기는 예도 여기저기에서 볼 수 있다. 이러한 조제 기법은 해당기에 심발에만 한정되지 않는다. 38·41~43에서 알 수 있듯이 약 절반 정도의 발형토기에서도 뚜렷이 기법의 조잡화가 엿보인다. 이런 특징으로 보아 발형토기의 용도, 기종 구성에 대한 의식이 변화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 사료된다. 후기에 나타나는 발형토기 구성물 증가 문제와 함께 추후 과제로 삼고자 한다.

수가리Ⅲ식기는 최상부의 제 I ~ II층을 표식으로 한다. 조사를 담당한 정정원(鄭澄元), 신경철(申敬澈)은 이 층을 바탕으로 신석기시대 만기 호칭을 제창했다(정(鄭)·신(申) 1981). 무문양 토기가 대부분을 차지하지만, 새로 구연부 바깥면을 연대상(緣帶狀)으로 두껍게 한 겹아가리 토기가 등장한다(제10도 4·5·9~12). 유문의 예 또한 문양은 극히 희박해져 구연부 부근에 1~2 단의 단사선문을 시문하는 정도가 된다(제10도 1~5·10). 기종은 심발 외에 발형, 향아리, 긴목 단지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2011년, 임상택 등은 해당 3구 패총 I·II층에서 출토된 토기군에서 추가로 신구 두 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며, II층 출토 토기군을 수가리Ⅲa식, 그리고 I층 출토 토기군을 수가리Ⅲb식으로 나누었다(임(林)·안(安) 등 2011).

자세히 살펴보자. 우선, 제II층에서 이미 주류를 이루는 겹아가리 심발은 형식학적으로 더 여러 시기로 분류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제10도 3~14는 구연부 바깥면에 접어 성형한 흔적을 확인할 수 있는 d②~④형의 일군으로, 이동주(李東注), 임상택(林尙澤), 배진성(裴眞晟), 미야모토 가즈오(宮本一夫) 등이 주장하는 겹아가리 토기의 전제 단계에 해당한다(이(李) 1991, 임(林) 2001, 배(裴) 2003, 미야모토(宮本) 2004). 이에 반해 17은 구연부 바깥면에 네모 모양 점토띠를 접합하는 d⑥b형으로, 같은 그림 아랫단의 제1층에서 출토된 일군(42~44·46~51)과 상통한다. 17은 제1층으로부터 혼입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기면 조정 측면에서도 제II층의 접어 성형한 구연이 보이는 겹아가리Ⅲa식의 경우 설혹 무문양이라 하더라도 치밀하게 연마 조정을 한 정제품(그림 ☆ 표시)이 많은 반면, 제 I층에서 출토한 Ⅲb식에서는 도시하는 바와 같이 원칙적으로 조제뿐이다(그림 ▽ 표시). 이와 같이 둘 사이에는 명확한 시기



제10도 수가리 3구 패총 출토토기 (2)

(☆: 정제 ▽: 조제 / 林·安 등20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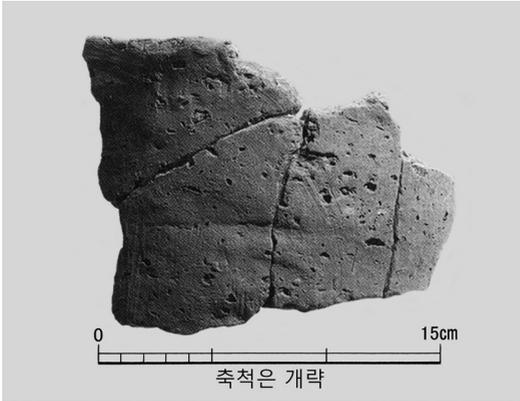


사진5 수가리 출토의 아바타토기  
(林·安 등2011보다 일부 재편)

차이가 있다고 보는 것이 좋을 것이다.

다음으로 제Ⅱ·Ⅰ층에서 공반 출토된 무문양 심발은 앞단을 계승해 조제화 경향이 더욱 뚜렷하다. 기형은 Ⅱ-A①b형, B①·②·⑤형, C①b형이 있다. 이 중 B⑤형과 C①b형은 새로 나타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정·조제 기법의 분화가 이 신석기시대 만기의 전일~중엽 단계에 촉진되었고, 후에 심발의 전기종이 조제화되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인접한 일본 측, 특히 쓰시마 난류 벨트지대와의 관계를 고찰하는데 있어서도 실로 흥미롭다.

그 외에 제Ⅱ층에서는 태토 조정, 소성 기법 문제와 관련이 있는 ‘아바타 토기’ (고이즈미(幸泉) 2017)가 무문양 토기의 일부에서 뚜렷해진다(사진5, 제10도 25·26·29·30·34 등)<sup>3)</sup>.

21·24·31는 저부이다. 만곡이 완만한 환(원)저②형을 기본으로 한다. 이 수가리 3구 패층에 대해서는 1981년에 부산대학교 박물관에서 간행된 『수가리 패층 I』 (정(鄭)·임(林)·신(申) 1981)의 단계에서는 제Ⅵ층에서 출토된 1점 외에는 평저(중저)에 관한 보고는 없었다. 즉, 후루사와 요시히사(古澤義久)가 지적한 바와 같이 일본계의 중저, 둔대바닥은 원칙적으로 확인되지 않는다는 평가와 연결된다(후루사와(古澤) 2012). 그러나 2011년에 이 박물관에서 추가 발간한 『수가리 패층 II』 (임(林)·안(安) 등 2011)에서는 3구 패층 제Ⅵ층만이 아니라 만기에 해당하는 제Ⅱ층에서도 중저 출토 예가 있음이 새로이 보고되었다. 더욱이, 제1층에서는 제10도 64~66에 제시한 것과 같이 조몬계 토기의 공반출토가 판명되었다. 모두 수순부에 지두 압날이 있는 필자의 무문계 K유형 I형(고이즈미(幸泉) 2017, p65 참조), 일본 규슈의 조몬시대 중기 후일~후기초두 단계에 속한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면 수가리 패층에서 출토된 중저편에 대해서도 일본계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 (3) 부산광역시 범방 유적

1991년에 부산박물관이 실시한 학술 발굴에서는 패층 중추부 B~D·F 지구에서 신석기시대 조기의 양호한 층위 관계(제13~12층: 범방 I 기, 제11~7층: 범방 II 기)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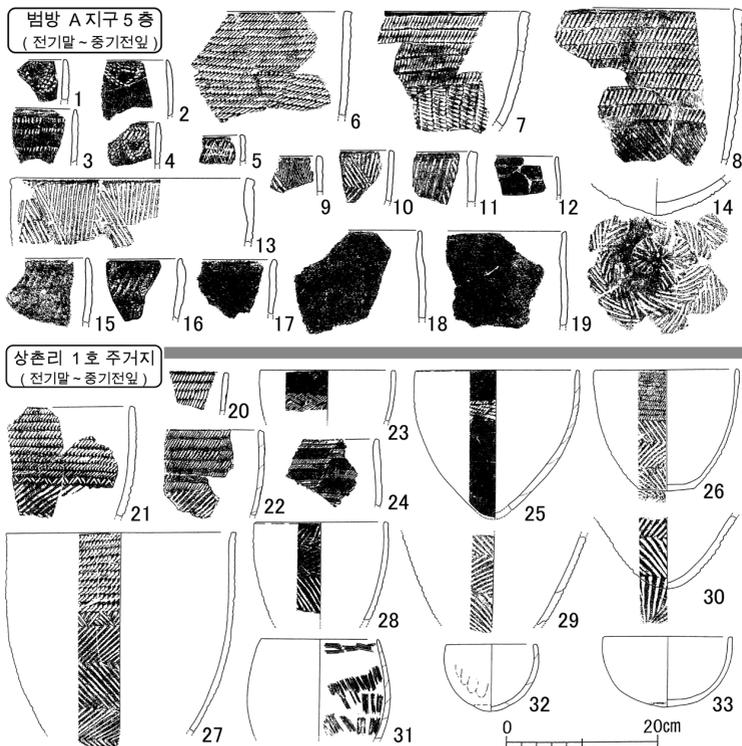
파악되며, 상부의 제2층(순패층)에서는 널리 신석기시대 만기의 이중 입인연 단사선 문계 토기가 출토되었다. 더욱이, 패층 서쪽 주변부로 층서가 독립된 H지구에서는 그 중심을 이루는 I~VII층에서 신석기시대 중기가, 또 A지구 5층에서도 마찬가지로 신석기시대 중기의 태선침선문계 토기군이 여럿 출토되었다 (하(河) 2009).

제11도 윗단은 A지구 5층에서 출토된 신석기시대 전기 말엽~중기의 토기군이 다. 전술한 동삼동 패층 정화 지역의 1호 주거지, 5-1~5-4층 출토 토기군과 대체로 병행 관계에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전기말엽의 압인 자들문(1·2), 압인 단사선문계(6·7)와 함께, 압인 단사선문계와 횡주 어골문계를 정교하게 조합한 8, 아울러 외기면 전체에 정연하게 즐문이 시문된 5·9~11·13·14의 존재가 확인된다. 주목할 부분은 12·15~19에 나타난 무문양 토기군의 존재이다. 이중에서도 15~19의 심발형은 앞의 동삼동 패층에서는 확인되지 않는 기종이다. 15·16은 외기면에 명료한 지두문을 남긴 점에서 조제(粗製)가 분명하며 창녕 비봉리 패층(국립김해박물관 편저 2008)제 31~25층과도 연관성이 있을 것이다. 덧붙여, 동삼동 패층과의 대비도 고려하면 이들 무문양 심발이 전기말엽까지 거슬러 내려갈 가능성도 부정할 수 없지만, 현재로서는 조제·무문의 재지적(在地的) 전통이 한반도 남부 해안부 주변에서 계승되었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으로 이해해 두고자 한다. 기형은 II-A①b형과 B①형으로 분류된다. 전반적으로 두께 4~6mm 정도로 얇으면서 균일하지 않게 마무리한 토기로, 공반출토된 정제 유문양 심발군에 비해 조제색이 강한 일군임을 알 수 있다.

#### (4) 경상남도 진주시 상촌리 유적

이어서, 내륙부 즉 남강 유역을 보도록 하자. 제11도 아랫단에는 상촌리 유적1호 주거지의 사례를 제시했다 (동의대학교(東義大學校) 2002 등). 이 유구 안에서도 마찬가지로 신석기시대 전기말엽~중기전일 단계의 풍부한 토기군이 발굴되었다. 유문양 심발에서는 구연부에 압인 단사선문계, 몸통부에 횡주 어골문을 시문한 예, 어골문, 마름포플 집선문, 거치문(鋸齒文), 삼각 집선문 등을 조합한 개체 등이 확인된다. 같은 그림 윗단의 부산광역시 범방 유적 A지구 5층 및 H지구 I~VII층과는 다소 달라, 무문양 토기의 비율이 극히 적다. 심발에서는 전기말엽~중기전일 통틀어 외기면 전체를 정교하게 장식하고, 치밀하게 마무리한 즐문계 정제 토기만으로 구성되어 있다.

공반출토된 무문양 토기는 겨우 31~33를 제시할 수 있을 뿐이다. 이중 32·33은 동삼동 패층 정화 지역과 마찬가지로 발형토기이다. 해당 시기의 무문양 발형토기는 경기도 하남시의 미사리 유적(임(林)·최(催)·김(金)·송(宋) 1994, 임(任)·최(催)·임(林)·오(吳) 1994 외), 서울특별시 강동구의 암사동 유적(한(韓)·정(鄭)·은(殷) 1995, 송·윤·김 2007·2008), 충청남도 태안군 안면도의 고남리 패층(김(金)·심(沈) 1990, 김(金)·안(安) 1991) 등에서도 명백히 알 수 있는 것처럼 한반도 중서부 지역에서도 극히 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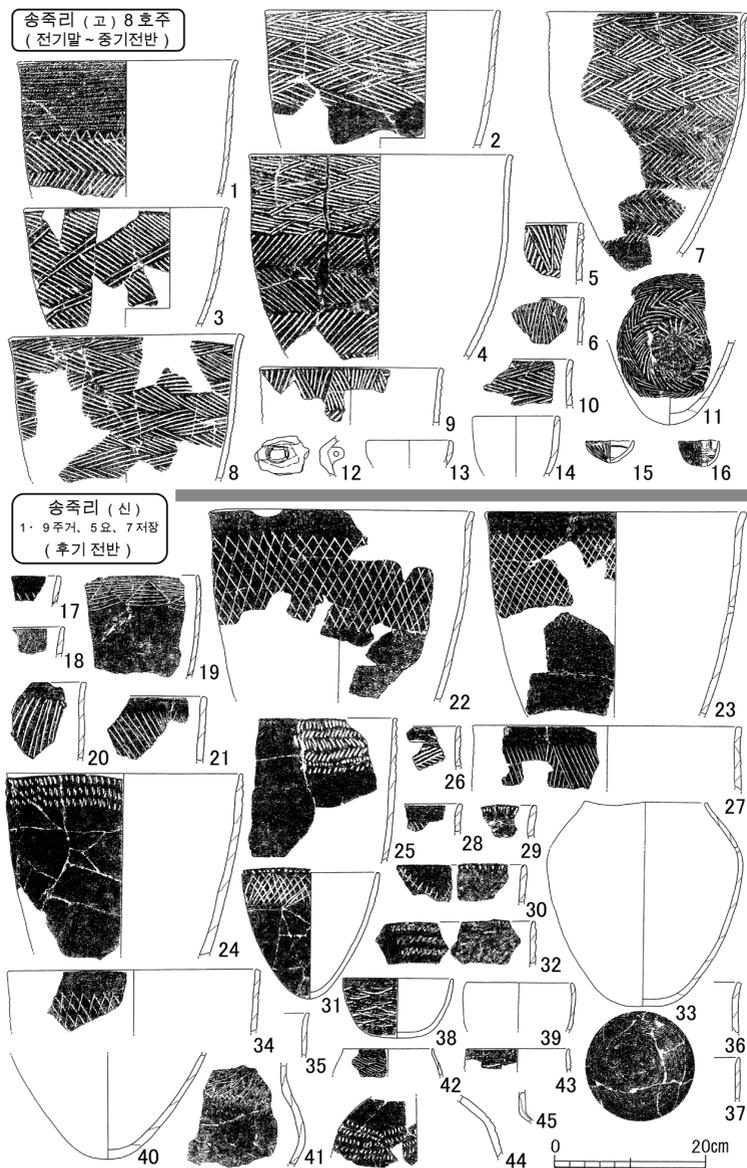
제11도 범방 A 지구5층 · 상촌리 제1호주거지 출토토기  
(河2009 / 林 · 趙2002)

게나마 보고 예가 있다. 그 많고 적음을 고려하면 아무래도 남해안부의 양태에 유의하게 되나, 넓게는 한반도 일대의 특징으로 인식해야 할 것이다.

한편, 제1호 주거지 출토 자료에서 주목할 부분은 31에 제시한 포탄Ⅱ-A⑤b형 심발의 존재이다. 안쪽면에는 쇄모(刷毛) 형태의 조정흔이 보인다. 앞으로 더욱 연구를 할 필요가 있으나 본고에서는 무문토기 시대 전기층에서 혼입된 자료로 여기고 일단 고찰에서 제외하겠다.

### (5) 경상북도 금천시 송죽리 유적

경남 서부의 남강 유역, 상촌리 유적에서 북쪽으로 약 100km, 경북 내륙부 금천 지역에서는 송죽리 유적에서 방대하고 양호한 자료군이 보고되었다(배(裴) 2006). 여기



제12도 송죽리 유적 출토토기 (表2006)

에서는 신석기시대 전기말엽~중기전엽을 ‘고단계(古段階)’, 한편으로 명확히 시기가 그 뒤인 후기전반의 토기군을 ‘신단계(新段階)’로 구분하여 이어지는 검토를 해가도록 하겠다(제12도).

제12도 윗단은 고단계, 제8호 주거지에서 출토된 토기군이다. 앞서 제7도 및 제11도 윗단·아랫단의 각 일군과 대체로 병행 관계에 있다. 여기에서도 상촌리 유적과 마찬가지로 정제 유문 토기군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구연부가 다소 외반하여 바깥으로 휜 II-C①a형이 보편적이다. 앞서 논한 상촌리 유적에서는 일반적이지 않았던 특징이다. 물론, 동남해안 측에서도 확인되지 않은 제작 방식으로, 후술하는 후기, 봉계리식 성립의 연원을 이루는 내륙부 측의 지역색이라고 할 수 있으리라.

제12도 아랫단은 신단계, 제1·9호 주거지와 제5호 토기 가마터, 제7호 야외 저장굴에서 출토된 토기군이다. 각각 신석기시대 후기전반에 해당한다. 이 단계에서도 확실히 무문양 심발은 소수파이다. 즉, 무문·조제화가 급속히 진전되는 병행기 전후의 수거리 3구 패층Ⅳ~Ⅲ층(제9도 아랫단)과는 확실히 다르다. 모든 기종이 정제를 원칙으로 하고 있어 조잡하게 기면을 조정하고 방치한 개체는 거의 없다. 단, 문양 시문 자체는 간략화하는 방향을 시사하고 있다. 구연부에 점렬문을 몇 단 시문한 24(사진6), 즐문 혹은 사격자문을 간략화하면서 단숨에 시문한 2~3단의 과상문 형태로 장식한 침선문계 심발(사진7), 또는 시문을 일부만 한 25와 같은 장식이 존재하여 무문화로 향하는 새로운 움직임이 엿볼 수 있다. 위의 심발은 끝부분이 약하고 외반하는 s④형 구연(口緣) 바깥면에 폭 2~3cm 정도의 무문대를 형성한 II-C①형을 원칙으로 한다. 이러한 공백부 형성이 구연부의 외반화에 기인한다고 가정하면 인접하는 동남해안 지역에서는 탄생하기 어려우므로, 그 뒤를 잇는 봉계리식과 연결되는 조형(祖型)의 일군으로서 다시 주목할 만하다(이하, 가칭 ‘송죽리식’).

그림에 나타난 바와 같이, 공반출토된 무문양 토기는 이 후기전반의 송죽리식 단계에서도 여전히 극히 저조하다. 단, 기종 측면에서는 기존의 발형과 더불어 35~37에 나타난 것과 같은 심발형도 소량 존재한다. 다만, 조제 개체를 명확히 구분할 수는 없다. 이처럼 해당 지역에서는 전부를 치밀하게 마무리하는 정제품을 계속 지향했다.

## (6) 경상북도 금천시 지좌리 유적

앞의 송죽리 유적에서 남서쪽으로 약 10km 정도 지점에 자리한다. 최근까지 이루어진 대동문화재연구원의 조사로, 해당 유적에서도 신석기시대의 양호한 유구가 여럿 검출되었다(조(曹) 등 2012). 제13도는 형식학적 관점에서 대부분이 앞의 송죽리식 토기군의 뒤를 잇는 것으로 보이는 일군이다. 이하, 가칭으로 ‘지좌리 제1~4 단계’라고 부르도록 하자. 이 중 지좌리 제1단계의 6호 주거지 자료는 단편적이거나 상술한 송죽리식에 속한다고 봐도 무방하다. 유문양 심발은 빗발문(雨脚文), 조우문(鳥羽文),

마름모꼴 집선문, 장사 집선문, 점렬문, 사격자문, 평행선문(平行線文) 등의 즐문 장식이 형해화한 문양군으로 이루어졌다. 그 뒤를 잇는 지좌리 제2단계에서는 14·22와 같이 원래 몸체에 즐치상 공구(다치구)를 사용해 조선문(條線文)을 시문한 예가 앞의 송죽리 유적 예와 마찬가지로 여럿 보인다. 기형은 앞단의 송죽리식을 계승해 구연부가 짧고 외반한 II-C①형이 주체이다. 이 경향은 이어지는 지좌리 제3단계에도 계승된다. 구연부 문양대의 무문화와 더불어 치밀화된 사격자문이나 단사집선문, 점렬문이, 그리고 가장 새로운 지좌리 제4단계에서는 39·42·43과 같이 구연 단부에 접어 성형한 겹가리의 전제 형식이 생성되었다(후기말엽).

위의 각 단계에서 공반출토된 무문양 토기는 모두 극히 적다. 게다가 주로 기면 조정이 치밀한 발형, 호형이다. 18과 같이 조제를 나타내는 포탄형 II-C①형의 무문양 심발의 존재는 드물고, 해당 내륙부 지역에서는 지좌리 제4단계의 후기 말엽 단계에 이르러서도 뚜렷한 증가 경향이 보이지 않는다.

#### (7) 경상남도 합천군 봉산면 봉계리 유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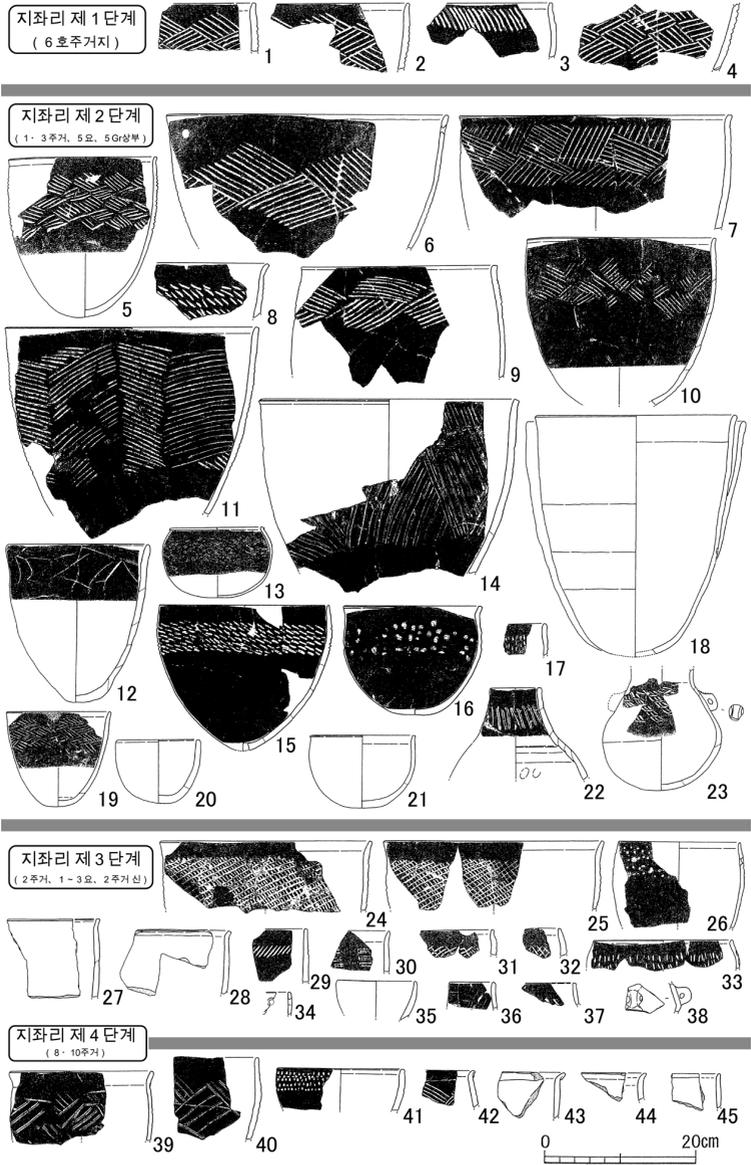
제14도는 소위 신석기시대 후기의 경남 내륙부를 대표하는 ‘봉계리 편년’의 표식 자료군이다(심(沈) 1989). 구연부 공백부의 형성 및 구연부의 외반화를 지표로 부산·김해 지역을 중심으로 분포하는 수가리Ⅱ식과는 다소 특징이 다른 것으로 해석되는 일이 많다(심(沈) 1989, 다나카(田中) 2003·2009, 후루사와(古澤) 2006 등). 퇴화 즐문에서 변이한 점렬문과 빗발문(雨脚文), 평행(압인) 침선문 등이 존재하는 것에서 만기로 가면서 한층 퇴화하는 경향이 엿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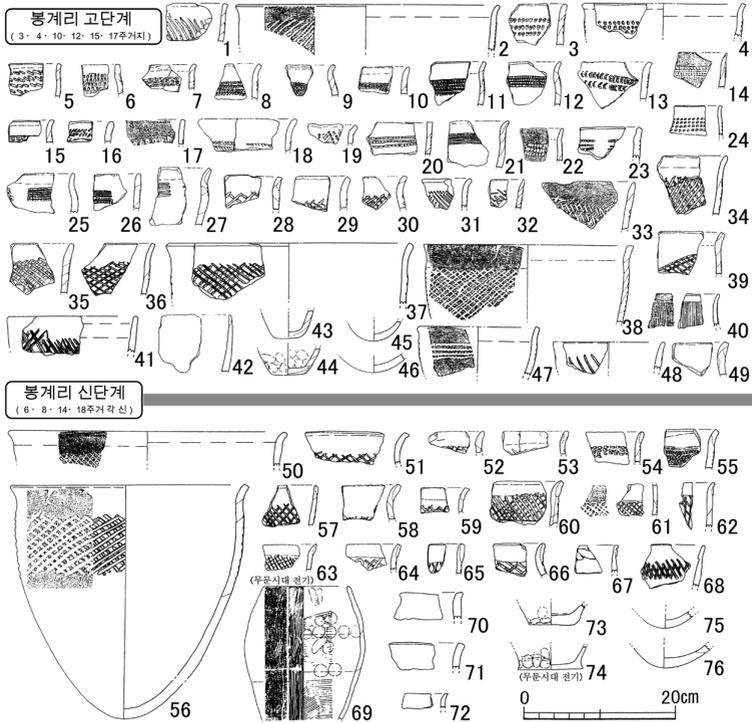
사진6 송죽리출토 점렬문 토기  
(제9호주거지출토: 裴2006보다 일부 재편)



사진7 송죽리출토 사격자문 토기  
(9-7지구출토: 裴2006보다 일부 재편)



제13도 지좌리 유적 출토토기  
(曁2002)



제14도 봉계리 유적 출토토기  
(沈1989)

이러한 봉계리 유적의 토기군을 더 자세히 비교하자면 제14도의 윗단·아랫단에서 구분한 바와 같이 유구 단위로 심갈 구연 단부의 외반 정도에서 일정 정도 차이를 찾아볼 수 있다(이하, ‘봉계리 고·신단계’). 그림 윗단의 6·8·14·18 주거지 중 새 토기군의 일군에서는 앞의 지좌리 제4단계와 마찬가지로 일부에 접어 성형한 구연 토기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윗단을 후기후요, 아랫단을 후기말엽으로 간주하겠다.

위의 일군에서 주목할 점은 앞의 수가리 3구 폐층의 IV~III층이나 후술하는 중산동 139유적 등의 동남해안부와는 달리, 무문계 토기의 비율이 고단계에서 3.9%, 신단계에서도 9.3%로 매우 낮다는 점이다<sup>41)</sup>. 이는 같은 내륙부에 자리한, 전술한 송죽리 유적과 지좌리 유적에서도 마찬가지로 엇보인 경향이다. 즉, 각종 무문양 토기의 문양 퇴화는 촉진되었으나 무문양 토기의 증가는 엇보이지 않았다. 이미 다나카 소이치(田中聰一)는 이 신석기시대 만기로의 전환기에 한반도 동남부에 있어 내륙부와 해안부



**사진8** 조선문 토기

(중산동139유적 출토 : 최2009보다 일부 재편)

이 우선 특필할 만하다(제15도). 공반출토된 유문양 심발은 반대로 구성비율이 겨우 16.7%로, 주변의 다른 지역과 비교했을 때 극히 적다. 제15도 1~5에 제시한 바와 같이 유문토기도 구연부는 대부분이 무문으로, 넓은 의미에서의 봉계리식과 병행한다 하겠다. 몸통부 문양은 조잡화한 사격자문과 즐치상 궁구(다치구)를 사용한 조선문의 둘로 구성되어 있다(사진8).

공반출토된 무문양 심발은 내만IIA①·③cd형, 직립II-B①형, 외반II-C①형이 있어 각양각색이다. 기면 조정은 물손질이 주체이고, 서해안 측에서 현저한 이때패 조흔이나 동남해안의 부산~울산 주변에서 엿보이는 아바타 토기 등은 확인되지 않는다.

저부에 관해서는 만곡이 약한 환(원)저 ②형을 기본으로 하나 23·33과 같이 평환저 ①·③형이 공반출토된 점도 간과할 수 없다.

34은 ‘이형토기’ 로 보고된 황갈색(10YR5/6)의 토기편이다(잔존 길이 약 2cm). 소성은 양호하나 외기면에는 지두흔이 관찰되고, 태토 중에는 5mm 이하의 석립(石粒)이 많이 섞여 있는 등 결코 정제품으로는 분류할 수 없다. 소편이긴 하나 일본계 심발의 주구상(注口狀) 돌기 유형일 가능성이 있다. 만약 그렇다면 조문시대 중기말엽~후기초두 단계에 속할 가능성이 높겠다.

**(9) 경상북도 청도군운문면 오진리 바위그늘 유적**

같은 울산 주변 지역으로 오진리 바위그늘 유적을 들 수 있다. 1993년 운문댐 건설에 따른 부산대학교박물관의 긴급 발굴로 확인된 바위그늘 유적이다(정(鄭)·박(朴)·서(徐) 외 1994). 학계 일반에서는 최하부의 제IV층에서 검출된 조제무문 섬유 토기군이 신석기시대 초기 이전에 해당하여 ‘오진리식’ 으로 설정된 것으로 유명하다. 그러

사이에 토기 문양의 작은 지역차가 있었을 가능성을 언급했다(다나카(田中) 2003·2009).

**(8) 울산광역시 중산동139유적**

2007년에 울산문화재연구원 이 실시한 조사에서 동해안 연안의 울산에서는 드문, 신석기시대 후기후반에 한정된 일괄성이 높은 자료군을 발굴했다(최 2009).

이곳에서는 내륙부의 일군과는 대조적으로 출토 토기군 대부분이 홀구연의 무문양 심발로 구성되어 있는 점

나 별도로 상부층에서 검출된 방형 주거지 내 출토의 일군은 전술한 중산동139유적의 뒤를 잇는 곁아가리 토기 출현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 부분도 간과할 수는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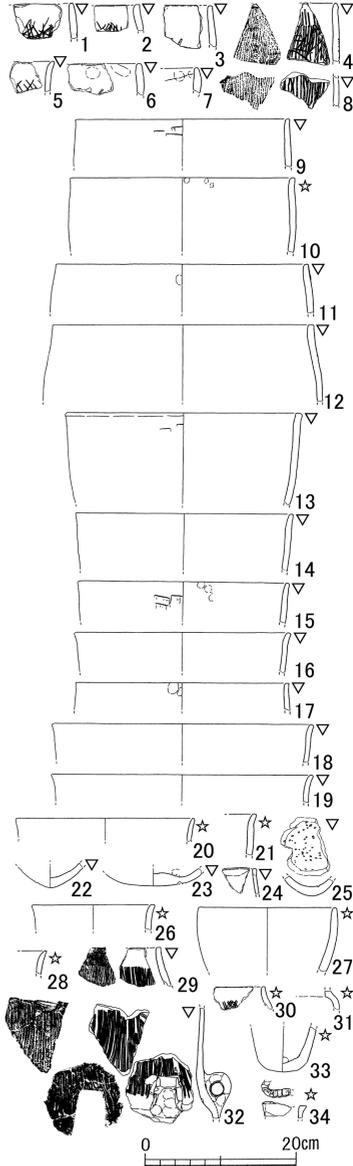
제16도 윗단이 그 출토 토기군이다. 유문양 심발에서는 3·4와 같이 구연부를 접어 성형해 무문대를 이룬 외반 d②형의 곁아가리 프로토타입이 주를 이룬다. 이 외에 1·2·5·6·9에 제시한 즐문이 민무늬화한 홀구연 심발의 일군도 많이 존속해 있다. 이 중 5는 즐치상 공구(다치구)를 사용한 조선문을 시문한 타입이다.

공반출토된 무문양 토기는 전 심발 중 44.4%를 차지한다. 아바타 토기는 확인되지 않았다. 곁아가리 출현 전후에는 아직 상당수가 계승되었다고 이해해도 될 것이다. 구연부 형상이 내만인 예는 드물고 (14), 직립하는 II-B①형과, 구연 단부를 약간만 외반한 II-C①형이 주를 이룬다. 또한, 15처럼 d②b형을 나타낸 곁아가리 토기도 유문양 심발과의 기술적 접촉을 거치면서 발생한 전제형의 일파로 여겨진다. 후에 무문양의 곁아가리 심발이 증가하는 것을 고려하면 10·14·15는 그 발생원을 이루는 최초의 사례 중 하나로 특히 유의해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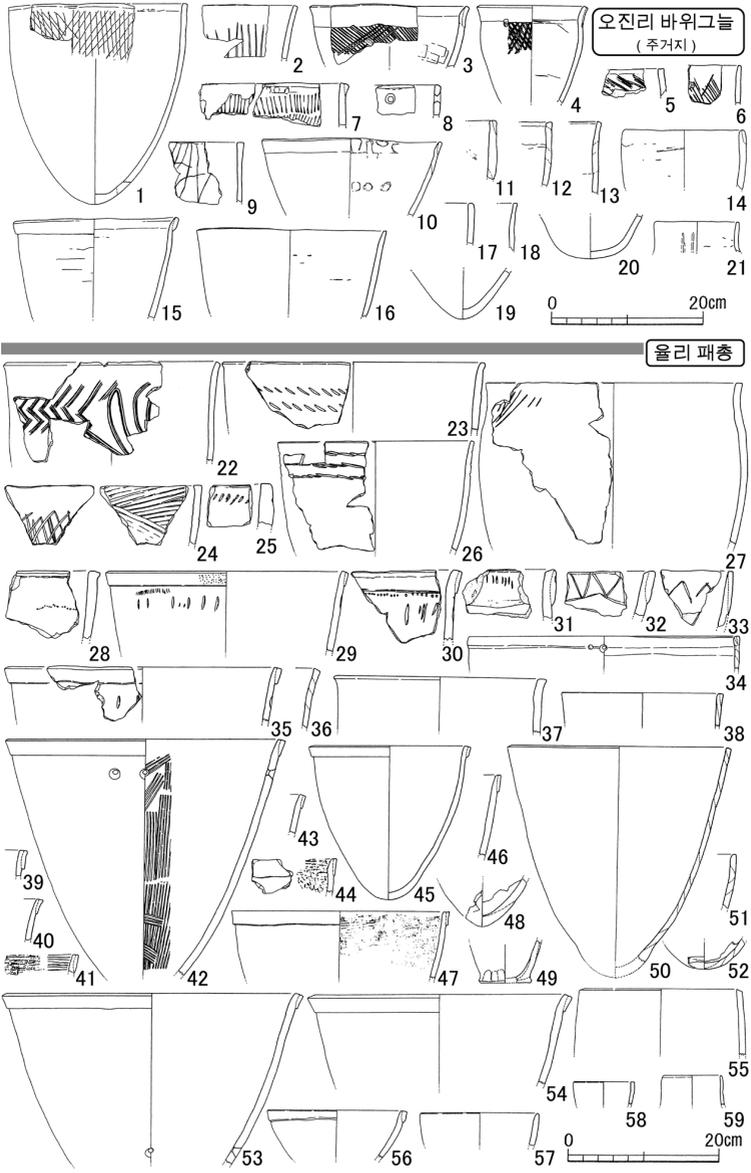
(10) 부산광역시 울리 패총

부산의 북쪽 주변, 울산과 인접한 지역에 가까운 지점에 위치한다. 해당 지방의 신석기시대 만기를 대표하는 동굴 유적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김(金)·정(鄭) 1980). 제 I~IV층으로 분층되었으나 출토 토기군에 시기차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제16도 아랫단에 그 주요 토기군을 제시했



제15도 중산동139유적 출토토기 (☆: 정제 ▽: 조제 / 최2009)



제16도 오진리 바위그늘 주거지·울리 패총 출토토기  
(鄭 등1994 / 金·鄭1980)

다. 22~28은 후기의 계보를 잇는 민무늬 토기의 일군이다. 문양은 간소하고, 횡주 어 골문이 형해화된 경우가 많다. 앞단에서도 확인되었던 점렬문과 단사선문, 횡주하는 평행 압입문 외에 봉계리식 계열을 시사하는 사격자문도 존재한다. 또한, 24의 안쪽 면에는 이때패 조흔도 엮보인다. 원 몸체에 즐치상 공구(다치구)를 사용한 22의 조선 문이 존재하는 것은 앞단의 후기후반에서 보여진 방식을 계승했음을 시사하는 것이리라<sup>5)</sup>.

제16도 29~35·39~47·53·54는 겹아가리 심발의 일군으로, 해당 유적의 주체를 점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소량이나 아바타 토기도 확인할 수 있다. 유문양과 무문양이 있으나 후자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다. 구연부 성형법은 앞단까지 현저했던 접어 성형한 구연이 사라졌고, 그 대신 폭이 좁은 네모 모양 점토띠를 구연부 바깥면에 붙이는 타입이 성행했다. 미야모토(宮本)의 ①b형 구연에 해당할 것이다(미야모토(宮本) 2004, p58-59).

이상과 같이 겹아가리 심발로 통일되는 과정이 진행됨으로써 퇴화 들문계의 후예인 민무늬 각 계통은 쇠퇴기의 양상을 보인다. 겹아가리부에 거치문(鋸齒文) 등의 무늬가 시문된 토기의 일부는 후술하는 바와 같이 만기후일~말엽 단계까지 거슬러 내려가는 혼입 자료의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배(裴) 2003, 이(李) 2014 등). 홀구연의 무문양 조제 심발에 관해서도 점차적으로 겹아가리 무문양 토기와 융합함으로써 일시적으로 그 구성비율이 줄었다(37.6%).

같은 층에서도 홀구연의 무문양 토기는 II-B①형의 직립 포탄형이 감소하고, 구연 단부를 약간 외반시킨 II-C①~③형이 주류를 이루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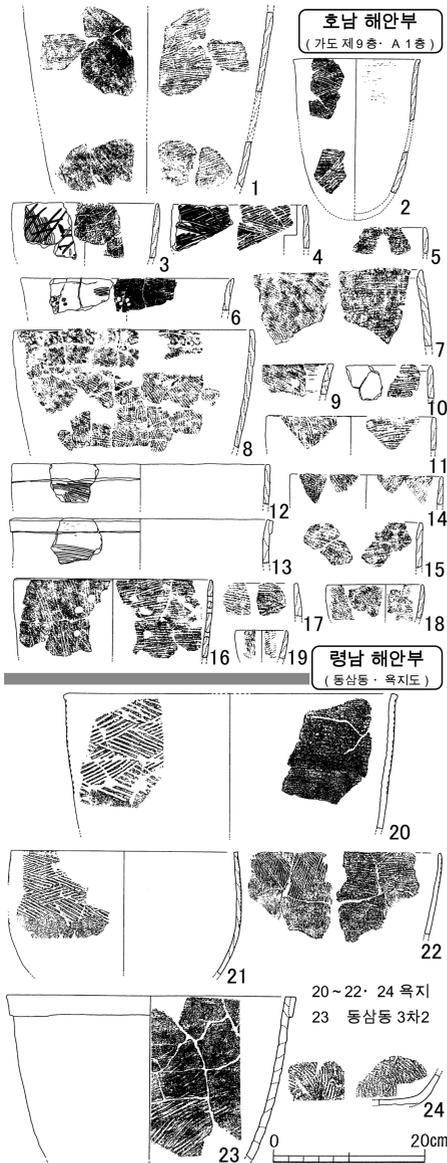
저부에 관해서는 환(원)저①·②형과 첨저②형을 기본으로 하나, 좌기의 동삼동 패층 예와 같이 중저④형도 조금 있다(49). 마찬가지로 일본 층과 교류가 있었던 궤적을 시사하는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

이 외에 56과 같이 발형토기에 관해서도 겹아가리인 사례가 출현한다. 새로운 요소이며, 만기전일 이후임을 보여주는 하나의 지표가 될 것이다.

한편, 41·42·44·47과 같이 울리 패층에서도 안쪽면에 이때패 조흔을 남기는 예를 종종 볼 수 있으므로, 마지막에 조금 언급하겠다. 이러한 이때패 조흔을 기체에 남기는 방식은 제17도 윗단에 제시한 바와 같이 한반도 서부의 호남 지방 연안부에서 특히 현저하다. 전라북도 군



사진9 이때패 조흔을 토기  
(수가리 3 구 II층 출토: 林·安 등  
2011보다 일부 재편 / 제10도23)



제17도 이매패 조흔을 토기  
(朴 등2001 / 韓 등1989 / 伊 등2004b)

산시의 가도 패층에서는 신석기시대 중기 이전 단계부터 안팎에 이매패 조흔을 바탕 무늬로 시문하는 토기가 보편적으로 존재한다(박·임·이·김·이·김·김 2001). 그중에는 즐문을 이매패 조흔으로 표현한 예까지 종종 보인다(제17도2·4). 이는 경기도 주변에서 특징적인 조선문을 이매패 원 몸체로 치환시킨 지역적 수법이기도 하다. 이러한 호남지방 주변으로부터의 영향에 의해 영남 남해안부에서도 옥지도, 상로대도 등에서 이매패 조흔을 사용한 개체가 일정량 확인되는데, 많은 경우 비시각적인 안쪽면만 채용하는 것으로 변화했다(제17도 아랫단 20~22·24). 동남해안 측에서는 위의 울리 패층 이외에서는 부산의 동삼동 패층에서 소량 그 존재가 인식된 정도이다(제17도 23). 이상과 같이, 이매패 조흔의 존재는 일본 측과 교류가 있었던 흔적으로 보기보다는 한반도 서해안 측으로부터의 영향을 반영한 것이라고 추정해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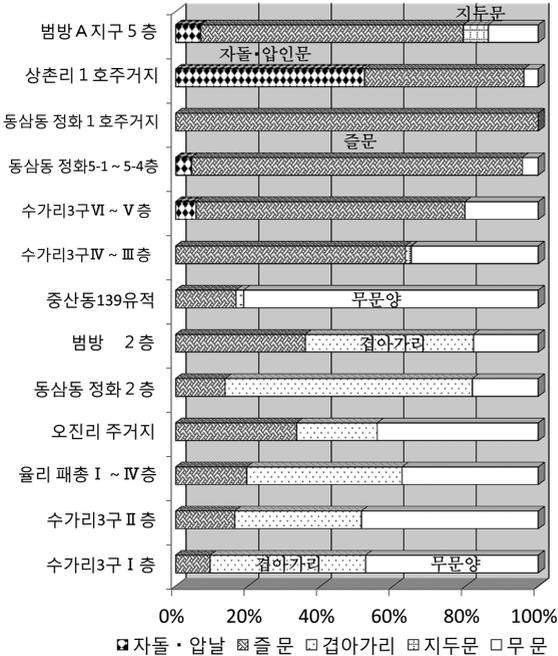
## 5. 한반도 동남부에 있어서의 무문양토기의 변천

이 절에서는 지금까지의 개별적인 검토 결과를 통합하여, 무문양 토기를 중심으로 한 신석기시대 중기 후반~말기 후반기까지의 양상 및 그 변천 과정에 대해 시기별로 정리하고자 한다. 논함에 앞서 제18·19도를 제시한다. 이는 주요 기종의 심발에 한정된 각 문양계통 구성에 관한 집계 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통틀어, 진주, 사천~부산, 울산까지를 잇는 동남해안 지역을 제18도, 합천~김천, 대구, 밀양 주변을 잇는 내륙부 지역을 제19도로 구분해 집계했다. 아울러 본고의 주요 논지에 따라 중기 후반 이후에 무문양 토기가 성행하는 동남해안에 초점을 맞추어, 각 시기의 대표 사례를 제20-1·2도에 정리했다.

### (1) 구성과 변천

#### 가) 신석기시대 중기 후반 (일본: 조몬시대 중기 전반)

신석기시대 중기중엽은 전형적인 즐문(유문양 정제) 심발 전성기에 해당한다. 이미 논한 바와 같이, 일부 발형토기를 제외하고 모든 기종이 유문양-정제화한다(제20-1도 2단계).



제18도 무문양통의 변천 (동남 해안 지역)

제18도의 동남해안 지역에서는 가장 윗단의 부산광역시 범방 A지구 5층보다 동삼동 패총 정화 지역 5-1~5-4층까지 사이, 즉 중기전반의 단계에서 유문양 정제 심발은 90% 이상으로 압도적 주체를 차지한다. 게다가, 제20-1도 2단계의 18~25에 제시한 바와 같이, 해당 시기의 유문양 토기는 극히 정교하고 예쁘다. 그러나 정제토기 전성의 분기는 오래가지 않았다. 중기중엽을 경계로, 즐문 장식의 간략화가 보이기 시작하기 때문이다(제20-1도 30·33·37 등). 더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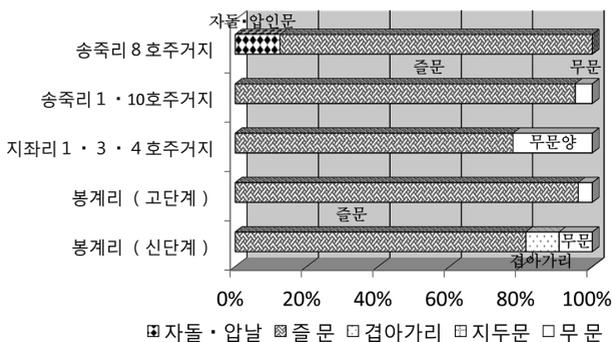
이, 이와 케를 같이 하여 동남해안 지역에서는 무문양 토기가 증가하기 시작한다(제20-1도 3단계). 당초에는 정제 무문양의 발형과 호형토기가 주류였다. 그후, 뒤를 잇는 후기전앞에 걸쳐 무문양의 심발도 증가하기 시작한다(제20-1도 45~47·49~51 등). 하지만, 중기후반을 대표하는 김해의 수가리 3구 패총 VI~V층의 무문양 토기는 전체의 20% 정도에 불과해 아직 주되지 않다. 더욱이, 크기에 있어서도 유문양 심발처럼 구경이 30cm를 넘는 개체가 없다. 38·39와 같이 구경이 20cm 조금 덜 되는 소형 심발 및 발형과 극소량의 호형토기뿐이다(임(林)·안(安) 등 2011, p238). 이상은 신석기시대 중기 이후의 무문양 토기의 기원이 발형토기에 있음을 시사할 것이다.

**나) 신석기시대 후기 전앞 (일본: 조몬시대 중기 후엽)**

후기전앞의 수가리 II식기가 되면 동남해안 지역의 무문계 토기는 30% 정도까지 증가한다(제18도, 제20-1도 4단계). 직립구연의 포탄형 II-B①·⑤형을 주체로 한다(제20-1도 4단계). 같은 시기의 유문양 심발은 무너의 간략화가 진행된다. 그러나 기면 조정은 여전히 치밀하고, 즉 정제이다(제20-1도 52~54). 이에 비해 무문계 토기는 눈에 띄게 조정이 거칠다. 소위 거친 ‘물손질’은 물론, 찰과흔, 지두흔, 깎아낸 조정흔을 그대로 방치한 개체가 적지 않다(제20-1도57~63). 더욱이, 제20-1도 65~68에서도 제시한 바와 같이 공반출토된 무문양 발형 중에서도 조제를 나타내는 개체가 출현한다. 이들로부터는 신석기시대 후기전앞 단계에서 ‘쓰고 버릴 것’을 전제로 한 일용 집기의 조제화가 널리 침투한 것을 유추할 수 있다. 이상은 정·조제의 제작상 분화가 해당 시기의 동남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한 곳에서 성립했음을 이야기해 준다.

**다) 신석기시대 후기 중엽 (일본: 조몬시대 중기 말엽)**

이런 상황은 후기후반을 거쳐 발전적으로 계승된다. 현재로서는 아직 양호한 일괄 사례를 얻지는 못했으나, 울산광역시 중산동 139유적에서는 유문양 토기의 민무늬·조제화가 진행됨과 함께, 무문계 토기가 전체 심발 중 81.2%를 차지하



제19도 무문양통의 변천 (내륙 지역)

여 곁아가리 출현 이전의 최고 수준을 나타낸다(제18도 아랫단, 제20-1도 가장 아랫단 74~85 등). 한편, 같은 시기의 내륙부 지역에서는 무문양 토기 증가 경향을 거의 엿볼 수 없다. 이처럼 후기 후반에는 매우 명확한 지역차가 발생했던 것이다(제19도). 한편으로, 내륙부에서도 구연부의 무문화는 별도로 독자적으로 진행되어 민무늬화로 향하는 움직임을 공유하고 있다. 지금까지 크게 보았을 때 양자가 같은 방향성을 지향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져 온 이유이기도 하다.

덧붙이자면 이 즈음부터 만기중엽에 걸쳐 소량이지만 일본계 토기가 유입되기 시작한다(제20-2도 오른쪽 열 가운데 칸). 북부 규슈에서 유래한 것으로 사료되는 예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대체로 쓰시마 섬을 경유해 상호 교류가 있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유추된다<sup>6)</sup>.

#### 라) 신석기시대 후기 후엽 (일본: 조몬시대 후기 초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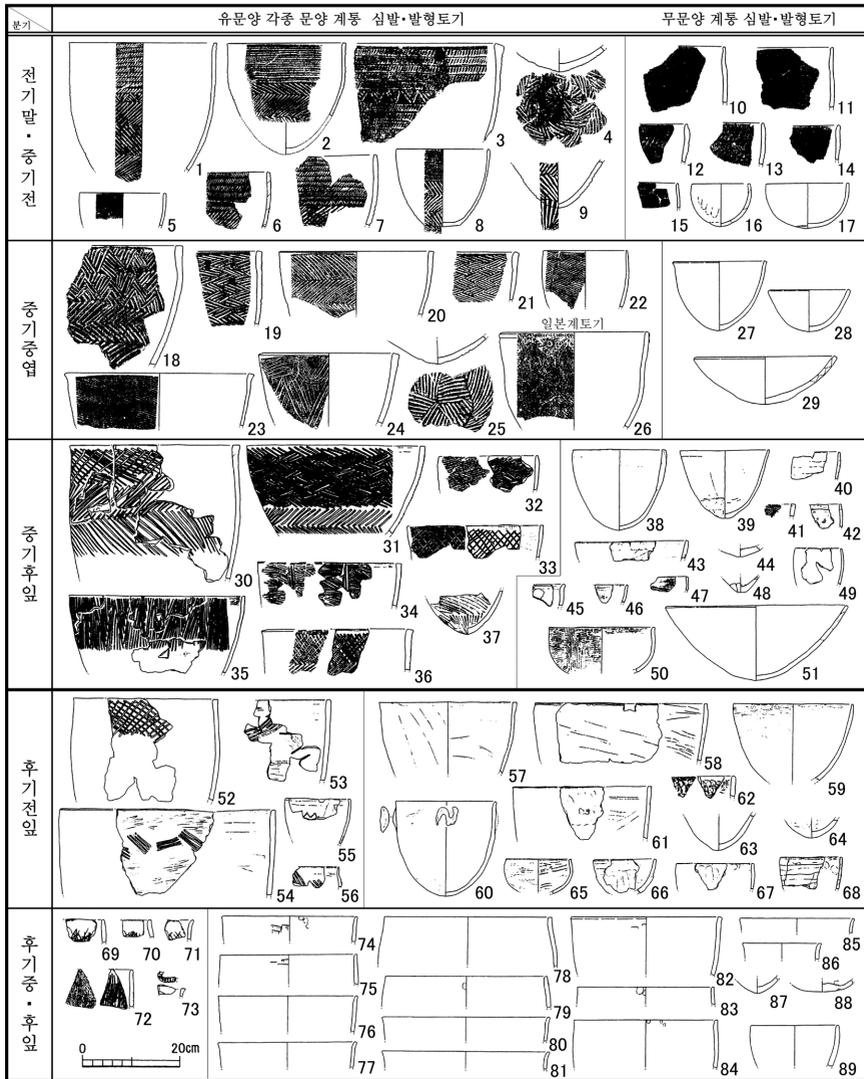
이 시기는 자료가 부족하나, 만기의 곁아가리 심발 성립으로 향하는 전제 단계로 볼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제20-2도 가장 윗단의 95·96·106에 제시한 것과 같은 접어 성형한 구연에서 그 외연에 단상(段狀)의 구연부 문양대가 생기기 시작한다(배(裴) 2003, 미야모토(宮本) 2004 외). 구연부가 짧고 외반하는 사례가 많은 점에서 앞단의 봉계리식 특징을 많이 계승하고 있다고 하겠다. 유문양 심발은 조제화가 더욱 진행되어 사격자문과 삼각 집선문의 퇴화된 장식, 혹은 분방한 횡~사(斜) 방향의 짧은 칩선문 등으로 이루어지게 된다. 공반출토된 홀구연의 무문양 심발은 구연부 외연 끝이 흰, 접혀 접합된 II-B④·⑤형, II-C①형이 특징적이다(제20-2도97~103·107). 구성 비율은 전체의 50~70% 정도이고, 곁아가리 심발이 성립하면서 홀구연의 비율이 저하되기 시작했다고 이해할 수 있겠다. 이 외에 발형토기의 구성률이 감소로 전환되기 시작하는 것도 대체로 이 시기부터이다(108·109).

#### 마) 신석기시대 만기 전엽 (일본: 조몬시대 후기 전엽)

곁아가리 심발이 정형화된 이후 단계이다. 역시 일괄 자료 등이 부족하다. 그러나 전후 시기의 특징으로부터, 아직 외반 구연의 성형기법이 남아있고, 앞단을 계승한 여러 계통의 유문양 토기가 약간 계승된 단계를 추정할 수 있다(제20-2도 110~115·132·133·135 등). 한편, 수가리 패총에서는 이 만기전엽에 해당하는 3구 제II층에서 아바타 토기, 조흔, 거친 ‘물손질’로 조정된 토기가 여럿 확인된다(제20-2도 138·140·142~146). 즉, 정·조제 기법의 분화가 한층 명확해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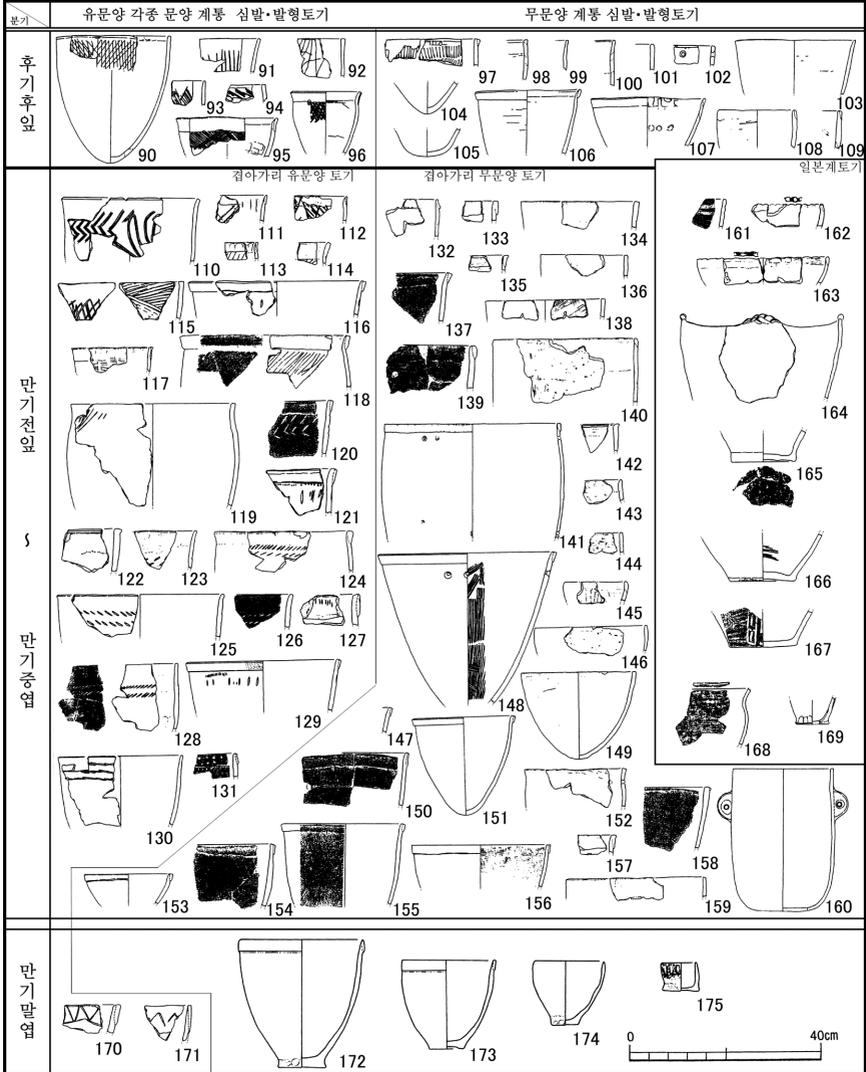
#### 아) 신석기시대 만기 중엽 (일본: 조몬시대 후기 전엽)

이 단계에서는 곁아가리 심발의 구연부가 외연에 네모 띠 형태의 짧은 융대(隆帶)



제20-1도 무문양토기를 중심으로 했다 편년 (1) (동남 해안 지역)

(1 · 5 ~ 9 · 16 · 17상촌리 1호주거지, 2 · 3 · 18~29동삼동 패총 정화 지역11호주거지 · 5-15-4층, 4 · 10~15범방 A 지구 5층, 30~51수가리 VI~V층, 52~68수가리 IV~III층, 69~89중산동139호)



제20-2도 무문양토기를 중심으로 했다 편년 (2) (동남 해안 지역)

(90~109호 진리 주거지, 110·115·116·119·121·122·125·127·129·130·147·148·151·153·156·169·170·171울리, 111~114·117·118·123·124·132~136·138·140~146·149수가리 II 층, 131·137·139·150·154·155·158·160·164~168 동삼동정화 2 층, 152·157·159수가리 I 층, 172~175어은1지구 95호 주거지)

를 붙이는 타입으로 점차적으로 변화한다(제20-2도 118·120·137·139→121·127·129·147·148·150·151·154~156 등). 또한, 전면 무문인 예가 대부분을 차지하게 된다. 시문을 하더라도 구경부에 단순한 단사선이나 거치문을 올 시문하는 정도로, 만기 전일로부터의 변화로 여길 수 있겠다.

홀구연의 무문양 토기군은 이 시기, 일시적이거나 접아가리 토기로 수렴되는 경향이 강하다(동삼동 패총 정화 지역 2층에서는 접아가리 심발이 68%; 제18도). 또한, 제20-2도 152·158·159에서 알 수 있듯이 직립Ⅱ-B①·②·④~⑥a형의 심발이 일정량 확인되는데, 그 구성률은 심발 중 18%에 불과하다(제18도).

### 에) 신석기시대 만기 후일 (일본: 조몬시대 후기 중엽)

이 단계는 실태가 아직 파악되지 않았다. 2003년, 배진성(裴眞晟)에 의한 ‘상촌리식’의 형식 설정이 그 정점(定点)으로 여겨지는 정도이다(배(裴) 2003). 진주시 대평리 어은 1지구 유적의 95호 주거지로부터 중저 혹은 돈대바닥으로 바뀐 접아가리 말기의 양상을 상정하고 있다(제20-2도 가장 아랫단 172~175). 구연부의 접아가리는 낮고 평평하며 폭이 넓어진다. 울리 패총에서는 제20-2도170·171에 제시한 것과 같은 ‘접아가리 거치문 토기’가 출토되었다. 대평리 어은 1지구 유적이나 살내 유적 제2층과 비교하였을 때 후술하는 무문토기시대 초두의 ‘접아가리 새김늪 토기’에 선행하는 것으로 추정되므로, 이들도 만기후일~말엽 단계로 비정(比定)해 둔다. 다만, 현재로서는 많이 출토된 다른 사례가 없어 비교평가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최근, 세종특별자치시의 대평리 유적에서 무문토기시대 초기로 알려져 있는 새김늪 무늬 토기와는 별도로, B·D 지점에서 전술한 상촌리식의 뒤를 잇는 무문토기시대 최초기의 ‘접아가리 새김늪 토기’가 주거지 등에서 많이 출토되어 주목된다(이 등 2012·2017). 저부는 원칙적으로 모두 중저③·④형으로 전환했다. 홀구연의 무문심발도 공반출토되어 신석기시대 만기말엽과의 연속성을 엿볼 수 있다. 한반도 동남부 지방에 대해서도 상촌리식~대평리식 단계에 관한 자료가 늘어나기를 기대한다.

### (2) 무문양 토기 우세권의 ~ 탁월권의 범위와 변천

마지막으로, 이상의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무문양 토기 우세권의 범위와 확대화에 이르는 변천 과정을 지도상에 정리한 것이 제21도이다. 큰 획을 이룬 시기인 신석기시대 중기후일, 후기전반, 후기후반, 만기전일의 네 단계로 변천을 정리했다.

제21도 최상단은 중기후일의 양상이다. 점선내의 동남 해안이나 서해안 주변에서는 발형틀 중심으로 무문양토기가 소량 출토하기 시작한다. 아직도, 눈에 띈 존재의 지역은 존재하지 않는다.

제21도 2단계는 후기전반의 양상이다. 두꺼운 실선으로 테두른 동남해안과 서해

안 주변에서는 무문양 토기가 늘어 주류를 이루게 된다. 나아가, 유문양과의 사이에 정·조제의 분화도 촉진된다. 단, 내륙부 지역은 이와 추세가 달라서 민무늬 문화가 퍼지기는 하나, 무문양 토기는 4% 전후로 극히 저조한 추이를 보인다.

제21도 3단계는 후기후반의 양상이다. 두꺼운 실선으로 테두른 해안부 일대뿐만 아니라 낙도 지역인 제주도과 일본 쓰시마도 새로이 무문계 토기 주세권에 편입된다(고이즈미(幸泉) 2017 등). 한편, 내륙부에서는 앞단의 제19도에도 제시한 바와 같이 여전히 무문양 토기의 비율은 저조하다.

제21도 가장 아랫단은 만기전일의 양상이다. 한반도 남부 전역에서 무문 접아자리 심발이 주류를 점한다. 단, 홀구연 무문양 토기도 일정량 존속한다. 병행권에 일본 측에서는 필자가 제창하는 ‘쓰시마 난류 벨트지대’, 즉 북서부 규슈~산인(山陰), 단고(丹後) 지역까지를 잇는 일본해(동해) 연안의 각 영역과, 이와 인접한 서부 세토우치(瀬戸内) 일부 지역에서 홀구연 무문양 토기만이 급증한다(고이즈미(幸泉) 2017·2018·2019·2020ab 등). 이처럼 토기에서 무늬가 사라지는 배경으로, 해협을 경유한 광역 지방 간의 새로운 교류의 시작을 가정할 수 있는 것이다<sup>7)</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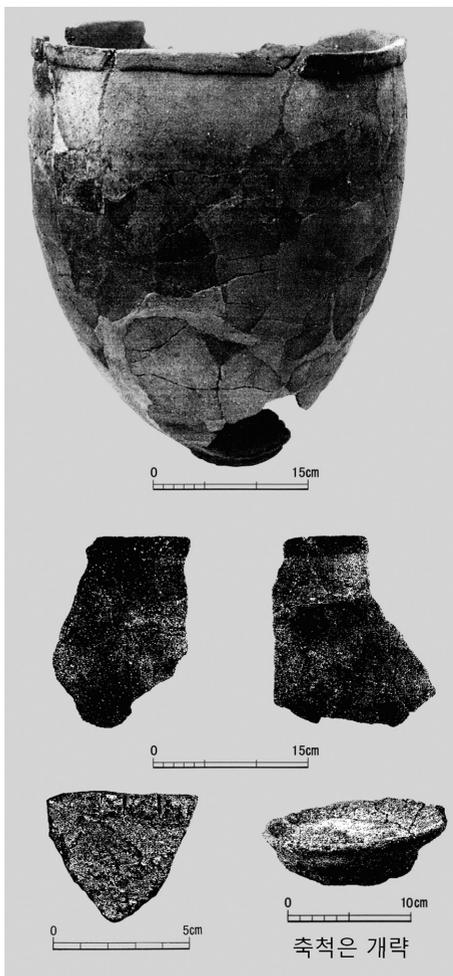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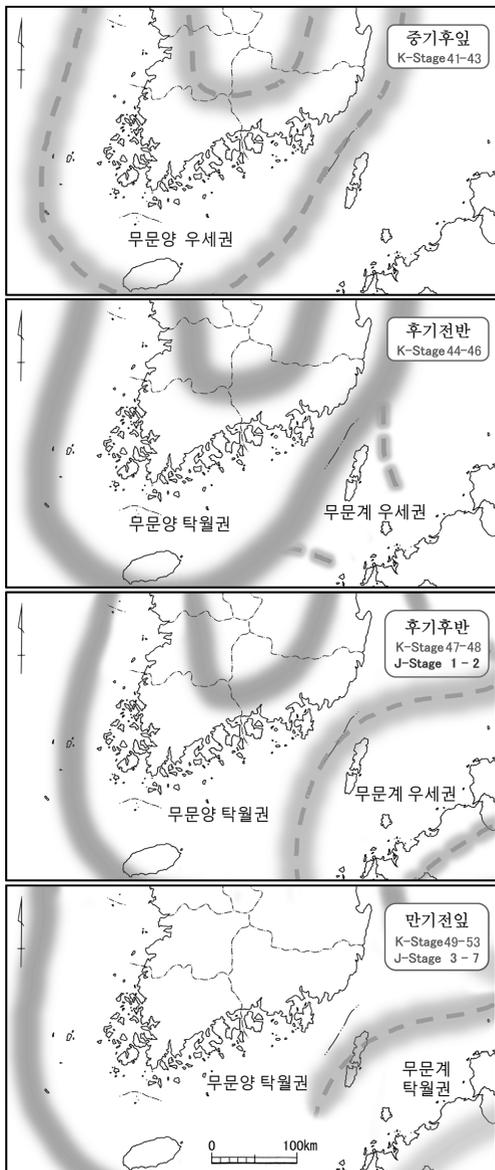
사진10 무문토기시대 초기초두의 토기  
(세종 대평리 유적 3-1-B지점 KC-008출토 / 이 등 2012)

## 6. 결 어

본고에서는 신석기시대 후반의 무문양 토기에 관하여 이상과 같은 성과를 도출했다. 원래 신석기시대에 출현하는 토기의 시원은 모두 무문·조제였다. 한반도 동남부에서도 신석기시대 초기~전기에는 무문·조제의 포탄형 홀구연 심발이 상당한 비율을 차지해, 일용 집기로서 오랫동안 보편적으로 존속했음을 엿볼 수 있다.

그러나 그 후, 신석기시대 중기의 소위 전형 즐문기에 이르러 일시적이거나 유문양 즐문계가 압도적인 주류를 이루게 된다. 이는 제 18·19도 등을 통해 제시한 바와 같다. 이 시기의 심발은 거의 모두가 정제 유문양 즐문계로 점해졌고, 무문양 토기는 적은 수의 발형과 호형토기뿐이다. 이런 상황은 특히 동남해안 지역에서 뚜렷이 나타나는데, 부산의 범방 유적에서는 재지(在地)계로 여겨지는 소량의 홀구연 포탄형 무문양 심발이 존속해 있었다. 이 점에 관해서는 새 자료가 추가로 갖추어지기를 기다리면서 계속 규명해 갈 필요가 있을 것이다.

아무튼, 토기의 무문화에 이르는 첫 번째 획기는 신석기시대 중기후반에 도래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태선침선문계에서 문양의 민무늬화, 희박화가 진행되는 ‘퇴



제21도 무문양 / 무문계토기 우세권 ~탁월권의 범위와 변천

화 즐문계’ 로의 이행, 즉 수가리 I 식 단계로 상징되는 변화이다. 문양은 점차 구연부에만 시문하게 된다. 더욱이, 그 뒤를 잇는 후기전반, 수가리 II 식 단계에서는 아바타토기와 조흔 토기도 등장하여 단순히 무문양이 늘어날 뿐만 아니라 정·조제의 분화로 뚜렷해진다.

이런 과정을 거쳐 한반도 동남부의 해안 지역에서는 신석기시대 후기후반~만기초두의 분기에 무문양 조제 심발이 압도적인 위치를 점하게 된다. 이는 대략, 일본에서의 조몬시대 후기중엽~후기초두의 분기에 해당할 것이다. 실은, 같은 시기의 일본 측에서도 인접한 일본해(동해) 연안의 ‘쓰시마 난류 벨트시대’ 에서 마찬가지로 획기가 도래했음을 최근에 필자가 밝힌 바 있다(고이즈미(幸泉) 2017·2018·2020ab 등). 즉, 정·조제가 분리되고, 무문양 토기군이 압도적인 위치를 점하게 된다. 또한, 규슈 북부의 아다카Ⅲ식~사카노시타식, 세토우치의 야베오쿠다(矢部奥田) 유형 등등, 무문양 토기에 관해서도 문양을 구연부에 집약시키고 경동부가 민무늬화하는 시기가, 병행기 한반도 측의 움직임과 께를 같이 하는 경향이 있음이 이미 확인되었다. 양국간의 움직임의 연쇄 관계를 고려하면 실로 흥미롭다<sup>8)</sup>.

이상으로, 그 뒤를 잇는 무문토기시대 성립기로 향함에 있어, 앞으로 한국 신석기 토기 연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지금까지 학사적으로 여겨왔던 중국 동북부를 기원으로 가정하는 ‘화북형 농경 문화’ 확산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각 지역에 내재하는 조제·무문양화도 아우르는 재지(在地)토기의 연구일 것이다. 나아가, 해협을 경유한 일본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유문양 토기와 농경 관련 유물에만 주목할 것이 아니라 토기 무문화라는 해당 시기 전후의 공동된 현상의 배경을 파악하기 위해 비교 연구를 한층 심화해야 할 것이다.

## 주석

- 1) 이는 과거에 야네 요시마사(家根祥多)가 제기한 일본의 마가리타 유적의 무문 포탄형 심발에 대한 평가와 통하는 부분이 있다. 사실, 마가리타리 유적의 무문 토기에 대한 외래/재래 평가는 연구자에 따라 다르다는 점을 부정하기 힘들다. 야네가 논거로 삼은 외경 접합이나 소성법의 변화는 최근에 필자가 지적하는 산인(山陰) 지방 중부 지역에서 이미 선행해서 출현했었다(고이즈미(幸泉) 2020a 등).
- 2) 후루사와 요시히사(古澤義久)는 이와 같은 한반도 남부에서의 조몬계 토기 저부의 존재에 부정적이다(후루사와(古澤) 2012).
- 3) 토기 성형 시에 태도 안에 유기물, 조개껍질 파편 등을 많이 혼합함으로써 의도적으로 기체를 다공질(多孔質)로 마무리하는 기법을 뜻한다. 2017년에 필자가 제창했다(고이즈미(幸泉) 2017). 일본의 쓰시마 섬에서는 조몬시대 후기중엽인 Stage12 이후, 또 북부 규슈 본토의 연안 지역에서는 Stage14 이후의 성행이 확인되었다. 나아가 그 후, 일부는 동방으로 전파되면서 새김눈 돌대무늬 시기까지 존속한다는 것을 최근에 밝혔다(고이즈미(幸泉) 2017·2018·2019·2020ab 외).
- 4) 제14도 69에 대해서는 무문토기시대 전기 것이 혼입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단, 73·74의 중저편은 해당 시기에 속하는 것으로 여기겠다.

- 5) 경기도 하남시 미사리 유적에서는 전기말엽~중기전일의 단계에서 이미 다치구나 이매패의 조선문 기법을 사용한 횡주 어골문의 존재가 보고되었다. 즉, 이들 조선문의 원류가 서해안 측에 있음을 암시하는 것이리라.
- 6) 산인계 조몬토기가 원칙적으로 한반도에까지 도달하지 않은 것은 일반적으로 서쪽에서 동쪽으로 계속 흐르는 쓰시마 난류의 조류가 크게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 7) 다나카 소이치(田中聰一)도 이미 “조몬시대 후기전일의 아다카(阿高)계 토기 이후의 유문양 토기의 무문화(재지(在地)계 토기의 문양이 구연부에 집약됨) 경향이나 북부 규슈 지역에서 조제토기가 현저해지는 등의 현상이 한반도 남부 지방, 특히 동남부 지방의 양상과 비교가 가능” 함을 지적했다(다나카(田中) 2009, p165).
- 8) 오늘날도 여전히 고고학계에서는 서일본과 한반도를 기본적으로 단절된, 개별적인 신석기 문화로 해석하는 신중한 자세가 많다. 그러나 주로 미야모토 가즈오(宮本一夫) 등에 의한 정력적인 연구 활동 등을 통해 양국 간에도 다양한 교류가 존재했음이 확실시되고 있다(미야모토(宮本) 1990·2004·2017a·2019, 갑원(甲元) 1991·2001·2004·2008·2009, 다카하시(高橋) 1994, 와타나베(渡辺) 1995, 정(鄭)·하(河) 2001, 야마자키(山崎) 2003·2005, 미즈노에(水ノ江) 2003·2007, 히로세(広瀬) 2005, 임(林) 2008, 다나카(田中) 2009, 다마다(玉田) 2009, 이(李) 2013 등). 단, 미야모토(宮本)와 정(鄭)·하(河) 등도 지적하는 바와 같이 이러한 해협을 경유한 양 문화 간의 접촉은 어로민에 의한 시각 차원에서의 정보 전달과, 교환 물자에 의거한 정도로 가정하는 경우가 오늘날 여전히 강하다고 할 수 있겠다. 즉, 일상 관습과 사상, 정신 문화 차원에서의 접촉과 공유는 존재하지 않았다는 견해가 여전히 지배적인 것이다. 그러나 서일본의 무문계 조제토기를 주제로 한 ‘쓰시마·북부 규슈형 토기 구성’ 과 한반도 남부의 신석기시대 토기군의 ‘무문’, ‘정·조제’ 사이의 유사성·연관성과 관련하여 단순한 정보 전달이나 물자 교환 차원만으로 설명이 가능한 지에 대해서 앞으로 더 신중하게 논의해 갈 필요가 있을 것이다.

### 참고 문헌 (韓文)

- 國立金海博物館·昌甯郡 2008 『飛鳳里』 國立金海博物館
- 國立金海博物館·昌甯郡 2012 『飛鳳里Ⅱ』 國立金海博物館
- 金秉模·沈光注 1990 『安眠島古南里貝塚〈1次發掘調査報告書〉』 漢陽大學校博物館
- 金秉模·安德任 1991 『安眠島古南里貝塚〈2次發掘調査報告書〉』 漢陽大學校博物館
- 金用珩 1990 『朝鮮考古學全書 原始篇(石器時代)』 科學百科事典綜合出版社
- 金元龍·任孝宰·權鶴洙 1985 『鰲山里遺蹟Ⅱ』 서울大學校
- 金廷鶴·鄭登元 1980 『金谷栗里貝塚』 釜山大學校博物館
- 田中聰一 2009 「東三洞貝塚 出土 繩文系土器와 그 意味」 『韓國新石器研究』 18, 韓國新石器學會
- 朴淳發·林尚澤·李俊貞·金壯錫 2001 『駕島貝塚』 忠南大學校博物館
- 朴享順·羅建柱 2006 『群山 內興洞遺蹟Ⅰ』 忠清文化財研究院
- 裴成嫻 2006 『金泉松竹里遺蹟Ⅰ』 啓明大學校 行素博物館
- 裴眞晟 2003 「無文土器의 成立과 系統」 『嶺南考古學』 32, 嶺南考古學會
- 裴眞晟 2007 『無文土器文化의 成立과 階層社會』
- 孫寶基 1982 『上老大島의 先史時代 살림』 수서원
- 송의정·윤형원·김현정 2007 『岩寺洞Ⅳ』 國立中央博物館
- 송의정·윤형원·김현정 2008 『岩寺洞Ⅴ』 國立中央博物館
- 沈奉謹 1989 『陝川 鳳溪里遺蹟』 東亞大學校博物館
- 安在皓 2000 「韓國 農耕社會의 成立」 『韓國考古學報』 43, 韓國考古學會
- 安承模·李永德·金大聖 2003 『갈머리遺蹟』 湖南文化財研究院
- 安春培 1989 「居昌王佛里先史址 調査概報(Ⅰ)」 『嶺南考古學』 6, 嶺南考古學會

- 吳蓮淑 2000 「齊州島 新石器時代 土器의 形式과 時期區分」 『湖南考古學報』 12, 湖南考古學會
- 小畑弘己 2013 「동삼동패총·비봉리유적 출토 기장·조 압흔의 동정과 그 기준」 『韓國新石器研究』 25, 한국 신석기학회
- 尹武炳·任鶴鐘·吳世筵 2004a 「東三洞貝塚Ⅱ」 國立中央博物館
- 尹武炳·任鶴鐘·吳世筵 2004b 「東三洞貝塚Ⅲ」 國立中央博物館
- 尹武炳·任鶴鐘·吳世筵 2005 「東三洞貝塚Ⅰ」 國立中央博物館
- 李康承·朴淳發 1995 「新石器·青銅器時代遺蹟」 『屯山』 忠南大學校博物館
- 李東注 1991 「韓國南部 內陸地域의 新石器時代 有紋土器 研究」 『韓國上古史學報』 제7호, 韓國上古史學會
- 李東注 2001 「中東部海岸地域 빗살문토기 문화의 性格」 『韓國新石器研究』 創刊1號, 韓國新石器學會
- 李相均 1998 「新石器時代의 韓日文化交流」 學研文化社
- 李相均 2003 「日本 對馬島의 繩文遺蹟」 『韓國新石器研究』 6, 韓國新石器學會
- 이영주·김병섭·박소은 2007 「密陽 新安先史遺蹟」 慶南發展研究院
- 李亨求 2001 「晉州 大坪里玉房5地區 先史遺蹟」 南江湄水沒地區遺蹟發掘調查報告書
- 이흥종·현대완·양지훈 2012 「燕岐 大平里遺蹟 (3-1-B지점)」 韓國考古環境研究所
- 이흥종·현대완·양지훈 2017 「燕岐 大平里遺蹟 (3-1-D지점)」 韓國考古環境研究所
- 任鶴鐘·李政根·金良美 2008 「창녕 비봉리양매수장 신석공사 부지내 신석기시대 저습지유적」 국립김해박물관 편저
- 任孝宰 1983 「西海岸地域의 櫛文土器文化」 『韓國考古學報』 14·15, 韓國考古學會
- 任孝宰·權鶴洙 1984 「鰲山里遺蹟」 서울大學校 考古人類學叢刊 제9冊
- 任孝宰·崔鍾澤·林尚澤·吳世筵 1994 「漢沙里」 제4卷, 서울大學校博物館
- 林炳泰·崔恩珠·金武重·宋滿榮 1994 「漢沙里」 제3卷, 崇實大學校博物館
- 林尚澤 1999 「韓半島中部地域 新石器時代 中期土器의 樣相」 『先史와 古代』 13, 韓國古代學會
- 林尚澤 2001 「빗살무늬土器文化의 地域의 展開」 『韓國新石器研究』 創刊號, 韓國新石器學會
- 林尚澤 2003 「中部地域 新石器時代 相對編年을 둘러싼 問題」 『韓國新石器研究』 5, 韓國新石器學會
- 林尚澤 2008 「新石器時代 大韓海峽 兩岸地域 交流에 對한 再檢討」 『한·일교류의 고고학』 령남 고고학회·규슈 고고학회
- 林尚澤·安星姬·林秀珍 2010 「南海岸地域 新石器時代 遺蹟과 遺物」 『創設20周年記念論文集』 釜山大學校考古學科 151-173頁
- 林尚澤·安星姬·千羨幸·尹위남·최문정·정종환·송현경·임수진·장은혜 2011 「水佳里貝塚Ⅱ」 釜山大學校博物館
- 林尚澤 2012 「新石器時代 中西部地域 相對編年의 總合과 併行關係」 『한국 신석기문화의 양상과 전개』 中央文化財研究院
- 林孝澤·趙顯福 等 2002 「上村里遺蹟」 東義大學校博物館
- 鄭澄元·林孝澤·申敬澈 1981 「金海水佳里貝塚Ⅰ」 釜山大學校博物館
- 鄭澄元·朴英哲·徐給男 等 1994 「淸道 梧津里岩蔭遺蹟」 釜山大學校博物館
- 鄭澄元·河仁秀 1998 「南海岸地方과九州地方의 新石器時代 文化交流研究」 『韓國民族文化』 12,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 曹永欽·裴成燾·金才喆·朴鉉貞·李周暎·崔信英 2012 「金泉 智佐里遺蹟Ⅰ (新石器時代)」 大東文化財研究院
- 趙現鐘·梁成赫·尹溫植 2009 「安島貝塚」 國立光州博物館
- 趙榮濟·宋永鎮·鄭智善 2011 「泗川 本村里遺蹟」 慶尚大學校博物館
- 趙由典 1994 「晉陽 大坪里遺蹟」 文化財研究所 遺蹟調查研究室
- 최득준 2009 「蔚山 中山洞139遺蹟」 蔚山文化財研究院
- 河仁秀·李海蓮·李賢珠 1993 「凡方貝塚Ⅰ」 釜山直轄市博物館
- 河仁秀 1993 「前期櫛文土器의 一型式」 『博物館研究紀要』 2, 釜山直轄市博物館

- 河仁秀 1996 『凡方貝塚Ⅱ』釜山広域市立博物館
- 河仁秀 2006a 「末期櫛文土器の成立과 展開」『韓國新石器研究』12, 韓國新石器學會
- 河仁秀 2006b 「嶺南海岸地域の 新石器文化研究」釜山大學校大學院 博士學位論文
- 河仁秀 2007 『東三洞貝塚 淨化地域 發掘調査 報告書』부산박물관
- 河仁秀 2009 「부산아시아케임 승마경기장 내 凡方遺蹟」부산박물관
- 韓國考古學會編 2010 『改訂版 韓國考古學講義』社會評論
- 韓永熙·任鶴鐘·權相烈 1989 『欲知島』國立晉州博物館
- 韓永熙·任鶴鐘 1993 『煙台島 I』國立晉州博物館
- 韓永熙·鄭聖喜·殷和秀 1995 『岩寺洞』國立中央博物館
- 韓永熙·宋義政·鄭聖喜·尹炯元 1995 『岩寺洞Ⅱ』國立中央博物館
- 古澤義久 2011 「新石器時代中期～晩期韓日土器文化交流的特質－토호쿠 아시아에서의 이계동 토기 문화 접촉의 비교－」『韓國新石器研究』22, 韓國新石器學會

### 참고 문헌 (日英文)

- 有光教一 1962 『朝鮮櫛目文土器の研究』京都大学文学部
- 安在皓·千羨幸 2004 「前期無文土器の文様編年と地域相」『福岡大学考古学論集』小田富士雄先生退職記念事業会
- 安承模 2004 「韓国における農耕・定住生活のはじまりと社会変化」『文化の多様性と21世紀の考古学』考古学研究会
- L.L.sample & Albert Mohr, 1974, TongsamdongT : A contribution to Korean neolithic culuture history. ARCTIC ANTHROPOLOGY, XI-2, University of Wisconsin Press.
- 岡田憲一·千羨幸 2006 「二重口縁土器と孔列土器」『古文化談叢』第55集、九州古文化研究会
- 岡田憲一·河仁秀 2010 「韓半島南部終末期櫛文土器と縄文土器の年代的併行関係－韓国・東三洞貝塚出土の縄文土器を中心に－」『古文化談叢』第65集、九州古文化研究会
- 小畑弘己·真邊 彩 2014 「韓国櫛文土器文化の土器匠痕と初期農耕」『研究報告』第187集、日本国立歴史民俗博物館
- 韓國考古学会編 2013 『概説 韓国考古学』同成社
- 金廷鶴 1972 『韓国の考古学』河出書房新社
- 小原 哲 1987 「朝鮮櫛目文土器の変遷」『東アジアの考古と歴史』上、岡崎敬先生退官記念事業会
- 幸泉滿夫 2017 「縄文文化解体期をめぐる土器資料群の研究1」『古文化談叢』第79集、九州古文化研究会
- 幸泉滿夫 2018 「縄文後晩期における九州系土器の中国・四国地方への波及」『中四国の外来系土器』第29回中四国縄文研究会島根大会資料集
- 幸泉滿夫 2019 「縄文文化解体期をめぐる土器資料群の研究2（前篇）」『古文化談叢』第83集、九州古文化研究会
- 幸泉滿夫 2020a 「縄文文化解体期をめぐる土器資料群の研究2（後篇）」『古文化談叢』第84集、九州古文化研究会
- 幸泉滿夫 2020b 「縄文文化解体期をめぐる土器資料群の研究3」『古文化談叢』第85集、九州古文化研究会
- 幸泉滿夫 2021 『縄文農耕論と関連考古学史』JSPS 科学研究費助成事業（基盤研究C）成果学術書Ⅰ
- 甲元眞之·杉井 健 1999 「中島遺跡調査概要」『環東中国海沿岸地域の先史文化』第2編、平成10年度文部省科学研究費・考古学資料集7
- 小南裕一 2006 「日韓農耕文化成立期の土器編年と併行関係（予察）」『日韓交流史理解促進事業調査研究報告書』日韓交流史理解促進事業実行委員会
- 小南裕一 2008 「日韓農耕文化成立期の土器に関する諸問題」『地域と文化の考古学』Ⅱ、明治大学考古学研究室

- 坂田邦洋 1975『対馬の遺跡』縄文文化研究会
- 坂田邦洋 1976『対馬の考古学』縄文文化研究会
- 坂田邦洋 1978a『韓国隆起文土器の研究』昭和堂印刷出版事業部
- 坂田邦洋 1978b『対馬ヌカシにおける縄文時代中期文化』別府大学考古学研究会
- 龍田考古学会・九州国立博物館誘致推進本部編 2001『海峡を越えて』
- 田中聰一 2003「日韓新石器時代土器編年の併行関係」『先史学・考古学論究Ⅳ』龍田考古会
- 田中聰一 2009「櫛目文土器との関係」『弥生時代の考古学2』同成社
- 田中聰一 2013「対馬島と韓半島南海岸地域との海上交渉」『石堂論叢』55、東亜大學校石堂傳統文化研究院
- 田中聰一・古澤義久 2013「韓半島と九州」『季刊考古学』第125号、雄山閣
- 依 寛司 2009「“越境”する文化—対馬海峡島嶼部における縄文晩期から弥生時代にかけての様相—」『サイバー大学紀要』第1号、サイバー大学
- 千 羨幸 2008「西日本の孔列文土器」『日本考古学』第25号、日本考古学協会
- 塚原 博編 2003『野首遺跡』長崎県小値賀町教育委員会
- 中島直幸・田島龍太編 1982『茶畑遺跡』佐賀県唐津市教育委員会
- 中村大介 2017「青銅器時代における二重口緑土器の成立と地域性」『季刊考古学』第138号、雄山閣
- 中山誠二 2014『日韓における穀物農耕の起源』山梨県立博物館
- 橋口達也編 1984『石崎曲り田遺跡Ⅱ』福岡県教育委員会
- 端野晉平 2010「近年の無文土器研究からみた弥生早期」『季刊考古学』第113号、雄山閣
- 廣瀬雄一 2005「対馬海峡を挟んだ日韓新石器時代の交流」『西海考古』第6号、西海考古同人会
- 古澤義久 2006「韓半島新石器時代後・晩期二重口緑土器の生成と展開」『한일 신시대의 고고학』영남고고학회 / 구주고고학회
- 古澤義久 2010「日韓新石器時代土器文化交流」『季刊考古学』第113号、雄山閣
- 古澤義久 2012「韓半島における新石器時代—青銅器時代転換期に関する考察—遼東半島との併行関係を中心に」『西海考古』第8号、西海考古同人会
- 古澤義久 2013「九州と韓半島」『季刊考古学』第125号、雄山閣
- 古澤義久 2018『東北アジア先史文化の変遷と交流』六一書房
- 水ノ江和同 2007「ふたたび、対馬海峡西水道を越えた縄文時代の交流の意義」『考古学に学ぶⅣ』同志社大学考古学研究室
- 水ノ江和同 2012『九州縄文文化の研究』雄山閣
- 宮本一夫 1986「朝鮮有文土器の編年と地域性」『朝鮮学報』第121輯、朝鮮學會
- 宮本一夫 1990「海峡を挟む二つの地域—山東半島と遼東半島、朝鮮半島と西北九州、その地域性と伝播問題—」『考古学研究』第37巻第2号、考古学研究会
- 宮本一夫 2003「朝鮮半島新石器時代の農耕化と縄文農耕」『古代文化』第55巻第7号、古代學協會
- 宮本一夫編 2004『対馬吉田遺跡』九州大学大学院人文科学研究院
- 宮本一夫 2004「北部九州沿岸域と朝鮮半島南海岸地域の先史時代交流再考」『福岡大学考古学論集』小田富士雄先生退職記念事業会
- 宮本一夫 2005「園耕と縄文農耕」『韓・日新石器時代の農耕問題』慶南文化財研究院・韓國新石器學會・九州縄文研究会
- 宮本一夫 2017a『東北アジアの初期農耕と弥生の起源』同成社
- 宮本一夫 2017b「農耕文化の形成と展開」『季刊考古学』第138号、雄山閣
- 宮本一夫 2019「東北アジアにおける土器製作技術の広がり」と農耕の伝播」『農耕文化複合形成の考古学・下』雄山閣
- 家根祥多 1997「朝鮮無文土器から弥生土器へ」『考古学論集』Ⅰ、立命館大学

李享源 2014 「韓半島の初期青銅器文化と初期弥生文化」『研究報告』第185集、日本国立歴史民俗博物館

**삼화표 전거**

제 1 ~ 4·18~21도: 필자 원도, 제 5 도: L.L.sample & Albert Mohr 1974, 제 6 도: 坂田 1978, 제 7· 8 도: 河 2007, 제 9·10도: 林·安 등 2011, 제11도: 1~19河 2009, 20~33林·趙 2002, 제12도: 裴 2006, 제13 도: 曹·裴·金·朴·李·崔 2012, 제14도: 沈 1989, 제15도: 최 2009, 제16도: 1~21鄭 등 1994, 22~59金·鄭 1980, 제17도: 1~19朴 등 2001, 20~22·24韓·任·權 1989, 23李·任·吳 2004b, 20~22·24韓·任·權 1989, 23尹·任·吳 2004b 보다 일부 재편. 사진1: L.L.sample & Albert Mohr 1974, 사진 2: 필자 필자, 사진 3· 4: 河 2007, 사진 5· 9: 林·安 등 2011, 사진 6·7: 裴 2006, 사진 8: 최 2009, 사진10: 이흥중·현대완·양지훈 등 2012보다 일부 재편.

本論文の内容には、令和二～三年度における JSPS 日本学術振興会科学研究費19K01097（基盤研究C）助成事業「対馬暖流ベルト地帯周辺における縄文農耕の実証化に向けた関連石器類の広域基盤研究」（研究代表者：幸泉満夫）と連関した研究成果の一部が含まれている。